

독립 정신

통권83 2015년 9,10월호



권두언 한국사 교과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자 _이만열

특집 1 아베의 종전 70년 담화 _이영채

특집 2 '건국절' 시도와 '교과서 국정화' 음모 _김삼웅

기고 천안문 광장의 국가(国歌)와 해방군 행진곡 _서순일

친일파와 그 후손들(5) 독립 운동가를 탄압한 친일 대법원장들 _최광웅

김정록의 회고 회고록을 마치면서 _김정록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제천 의병 _이태룡

차리석(車利錫 : 1881 ~ 1945)

국가 독립을 완성하는 최후 방법은
적에게 점령된 국토를 완전 수복하고
상실된 주권을 완전 회복하는 것이다.
국토를 수복하되 일부분이 아니요,
주권을 회복하되 조건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무조건 회수하는 것이
즉, 완전 광복이다.



차리석(車利錫) : 신민회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의정원 부의장 역임

(위치 : 독립기념관 경내)

차리석 (車利錫)



호는 동암(東岩)이며,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신민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대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1911년 ‘105인사건’으로 투옥되어 3년간 복역하였고 3·1운동 뒤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신문』 기자와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도 참가하였다. 1922년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1930년 임시정부 국무위원, 1932년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35년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비서장으로 재임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임시정부 환국을 준비하던 중 중경임시정부 청사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차리석 선생은 해외혁명운동자 가운데 특히 강력한 정신력을 소유하시기로 유명하시었다. 탁월한 사무 처리의 기능이나 병중에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맡으신 사명을 완수하신 강한 책임감은 한국독립운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8년 사회장 당시 이시영·김구의 차리석 선생에 대한 추모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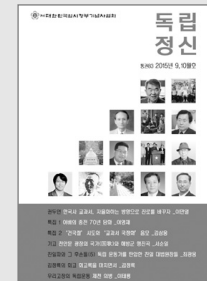
▲ 한국광복군 징모처 제3분처 사진(1941.3. 중국 중경) 제일 아랫줄 왼쪽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리석 순이다.

독립정신

2015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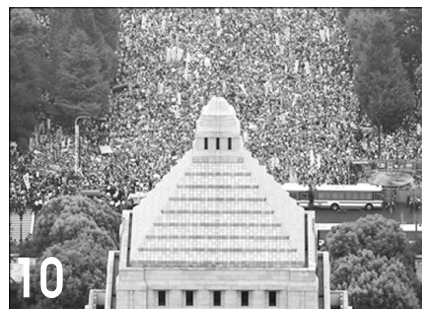
통권 83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04 권두언_
한국사 교과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자
| 이만열

08 특집_1
아베의 종전 70년 담화
| 이영채



18 특집_2
'건국절' 시도와 '교과서 국정화' 음모
| 김삼웅

24 친일파와 그 후손들(5)_
독립 운동가를 탄압한 친일 대법원장들
| 최광웅



29 김정록의 회고_
회고록을 마치면서...
| 김정록

44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제천 의병
| 이태룡

50 기고_
천안문 광장의 국가(国歌)와 해방군 행진곡
| 서순일

53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
마전골 귀한 딸 고문 견디며 나라 지킨 "김영순"
| 이윤옥

55 영화읽기_
영화 <암살>,
허구적 세계의 합목적성
| 이두희

59 임정서가_
몽양 여운형 평전
조국이 버린 사람들
어등산 의병대장 조경환과 전남지역 의병장
돌베개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 편집부

74 독립정신 이모저모



한국사 교과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자



이 만 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계속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러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여당에 의해 교과서 출판을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나오면서,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심히 군불을 때고 관료들은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엉거주춤하고 있던 보수언론마저 국정화에 반대의사를 하고 나선 형편이고 보니 국정화가 정부 여당의 뜻대로 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실어야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학계의 문제이고 따라서 학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터인데, 이게 교과서 발행체제와 결부되면서 정치·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으니 학계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는 김인정 체제로 발행되었다. 그러다가 1974년 ‘유신’ 치하에서 국정으로 바뀌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사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인정화해야 한다는 요

구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한국 근현대사’를 필수 교과목인 ‘국사’에서 분리시켜 독립교과목으로 하되 선택과목으로 하자는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출판되었다. 그 뒤 2010년에 가서야 필수과목인 ‘국사’ 교과서도 검인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4년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시비가 국회에서 시작되었고, 이어서 김인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북한 관련 내용과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내용이 일부 서술됨에 따라, 그것을 문제 삼아 보수언론들이 근현대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그런 서술은 당시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정부에서 제정한 교과서 편수지침을 반영하여 제작된 것이었다. 보수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다시 심의절차를 거쳐 검정교과서를 계속 사용토록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김인정체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교과서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했다. 정부가 검정하여 출판한 교과서를 정부 스스로 부정한다는 자기모순을 노출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필수인 ‘국사’ 교과서도 검인정화되면서 문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 시점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정부가 특정 교과서를 구제하기 위해 심의마저 왜곡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지극한 정성을 쏟은 정부는 그 채택율이 0%대가 되자, 그 때부터 국정화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가 국사교육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집요하다 할 정도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였다.

정부는 국정화의 논리를 정확하게 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 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검정교과서가 좌파에 의해 집필되었고 좌편향적이며 ‘자학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분단국가에서는 통일된 역사라야 한다는 것과 학부형들에게는 대입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단일 교과서라야 한다는, 친절한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사례들은 국정화의 초점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세력이 갖는 역사관과 맞닿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001년 이래 근현대사를 다룬 검정교과서들이 헌법에 명시된 독립운동의 전통과 4.19혁명으로 나타난 민주화 정신,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이념을 구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기독교 세력은 근현대 교과서의 이런 서술과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반발했다. 그들은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친일 식민세력이 ‘건국’ 했고, 독재부패세력이 성장시켰으며 철저한 멸공정신으로 무력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세력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는 데는 그들의 이런 목표를 교과서에 담고자 하는 의도라고 본다. 환언하면, 한국 근현대사의 주체를 독립운동세력에서 친일세력으로, 민주화운동 세력에서 독재부패세력으로, 평화통일세력에서 무력통일세력으로 바꾸자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최종 고시안에는 중학교의 새 <역사> 교과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종래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정리했던 역사인식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어 ‘건국절’ 논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종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한 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교육부의 설명이 또한 가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 교과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이라고 적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게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이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는 말은 일종의 망발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한 항일운동사에서는 1919년 3.1운동이 차지할 자리가 거의 없고, ‘3.1독립선언’을 통해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도 무시한다. 그 때문에 그 선언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또 ‘대한민국’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북한과 ‘수립’ 연도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1948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수립’ 연도를 북한 정권 수립에 맞추는 것은 거족적인 3.1혁명에 기초해서 이뤄진 것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얼마전 국편이 발표한 고등학교 국사 교육 지침과, 이번에 발표한 중학교 새 교과 과정에서 1920년대까지의 독립운동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1930-40년대의 독립운동을 제외시키려는 듯한 의도도 잘못된 것이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어떻게든 대한민국사와 분리시키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거해버리려는 일종의 음모론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정부가 교과서의 국정화 계획을 노골화하자 학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반대입장

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 대학의 교수들과 역사관련 학회들,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고 독립운동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학부모회단체의 반대 움직임도 활발하다. 반대의 논리는 분명하다. 역사교과서 출판의 세계적 추이가 국정에서 검인정, 자유발행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국정화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북한 등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정제는 민주국가에서 본받을 것이 못된다. 유신체제는 극복해야 할 대상인데 그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반역사적이다. 국정화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억압하고 사고의 획일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부는 이런 문제에 전혀 반성이 없다.

정부가 국사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 모처럼 시민의 박수를 받았다. 근현대사 교육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을 때도 그 적절성에 동감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정부주도로 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그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정부는 소위 선진국들이 왜 교과서를 검인정제도에서 자유발행제로 만들어 자율화·민주화·다양화하려고 하는지, 왜 근현대사에 역점을 두고 교육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특히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지금 행하고 있는 지나친 검열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자유발행제의 이상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차제에 국사 교육을 세계사 교육과 더 면밀히 연계하고 역사교육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적인 가치관을 더 넓게 함양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아베의 종전 70년 담화

[아베의 전쟁법안 처리와 성난 일본 시민들]



이 영 재
일본 계선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일본 국민이 ‘전쟁하는 아베’를 불렀다.

일본 시민 사회가 ‘전쟁법안’과 아베 정권에 대해 폭발했다. 지난 8월 30일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행동이 있었다. 일본 전역에서 모인 약 12만 명의 사람들은 도쿄 나가타초의 국회의사당 앞과 주변을 가득 메웠다.

나가사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고베에서 신칸센을 타고 온 사람, 유모차 탄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전쟁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여 들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였지만, 1시에는 경찰의 저지선이 무너졌고 국회 정문 앞 도로로 대중들이 진출했다. 일본에서 대중이 국회 정문 앞으로 진출한 것은 1960년대 안보 투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 정문 앞으로 진출한 일본 민중

공식 행사에서는 4개 야당 대표들의 연대 선언, 저명한 평화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연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 :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의 전쟁법안 반대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같은 시간 일본 전국 300여곳에서 ‘전쟁법안 반대,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행동이 공동으로 진행됐다. 사회자는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12만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100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쟁 반대! 아베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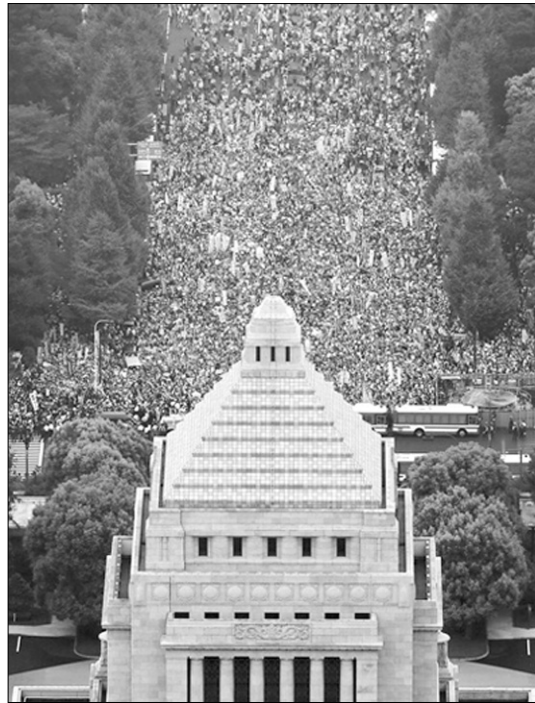
항상 침묵하고 지켜만 보던 부동의 일본 시민 사회가 드디어 전국적으로 일어선 것이다. 혁명은 아니더라도 혁명적인 순간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러한 전국적인 저항에도, 아베 내각의 퇴진과 안보 법안 폐기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성립 이후에도 이러한 저항 운동이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시점에서 왜 일본 시민 사회는 침묵을 깨고 일어난 것일까? 대중적인 저항에도 아베 내각은 왜 일방적으로 안보 관련 법안 성립을 멈추지 않는가? 이러한 대립 정국 속에서 발표된 전후 70년 아베 담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나하나 간단한 질문들이 아니다. 일본 사회의 정치적 변화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운명 과도 깊게 연관되어 왔다. 현재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전개 방향을 주시하는 것은 한국 시민 사회에도 중요한 과제다.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실패와 아베 정권의 등장

아베 내각은 일본의 보수 정치 지형으로 보면 극우 보수에 가깝다. 제2차 아베 내각의 등장은 결국 전후 일본 정치 세력 중에서 혁신 세력 및 중도(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약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 정치를 지배한 것은 소위 ‘55년 체제’다. 1955년에 사회당 좌우파가 통합하자, 위기 의식을 느낀 재계 및 보수 세력은 민주당과 자유당을



▲ 지난달 30일 오후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 시위를 하고 있다. 경찰이 버스로 차 벽을 만들어 시위대가 국회 의사당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통합해 자유민주당을 창당했다. 이후 국회에서 40여 년간 절대 다수를 유지해왔다.

1993년 신당 연합인 호소카와 정권에 의해 정권을 잃은 자민당은 사회민주당과 연립정권을 성립해 집권당에 복귀했다. 1996년에는 하시모토 내각을 성립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재집권한 자민당의 보수주의는 정치 및 경제 개혁의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자 2001년 자민당 내의 비주류에 속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지지했다. 고이즈미는 “자민당을 부수겠다”는 말로 집권에 성공했다. 이로써 보수 정권은 다시 한 번 연명할 수 있게 됐다.

고이즈미 내각은 우체국 민영화 등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표방하면서 빈부 격차를 가져왔으며, 일본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관료 정치와 재벌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집권 5년간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는 등 실질적인 보수 우익 노선을 표명하며 아베 정권 등장의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냉전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 후 사회당 및 공산당 세력의 약화 속에서 호헌 세력의 축이 무너져 내렸다. 고이즈미 내각 성립 이후 자민당 내의 중도 보수 세력의 약화 및 우경화가 뚜렷해졌고, 자민당 내 우익 세력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2006년 9월, 고이즈미 정권의 토대 위에서 등장한 제1차 아베 내각은 기다렸다는 듯 ‘전후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이전으로의 복귀를 표명했다.

제1차 아베 내각은 준비도 되지 않은 추상적인 헌법 개정 정책으로 야당 및 일본 시민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게다가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후유증을 받아안았다. 결국 제1차 아베 내각은 붕괴했다. 이것으로 자민당의 보수주의 정치는 실질적으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자민당을 대체하는 일본 보수 정치는 오자와 이치로 등 자민당에서 탈당한 자유주의 보수 세력, 센고쿠 민주당 간사장 등 사회당에서 탈당한 혁신 세력, 그리고 칸 나오토 등 시민 운동 그룹이 결합한 민주당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갔다. 민주당은 집권 자민당을 심판하자는 논리로 2009년 역사적인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을 성립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은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 외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끝내 지키지 못해 조기 붕괴했다. 하토야마 내각의 실패에는 외무성을 비롯한 친미파 관료의 방해의 영향도 컸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의 한반도 상황 등 외부적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민당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온 공공 사업을 중지하고, 빈곤 격차 해소와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책의 전체 방향성은 타당했다. 하지만 무모한 재정 계획과 추상적인 정책 내용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게다가 2011년 3월 11일 촉발된 국가 위기적 상황(대지진, 쓰나미, 방사능피해)에서 총체적인 정권 운영의 무능함을 보여 국민의 실망을 넘어서 강한 반발심을 불러 일으켰다.

잃어버린 경제 20년, 3.11 이후의 국가적 위기 사태의 봉착, 사회당 및 공산당의 혁신 세력의 붕괴, 자민당 내의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개혁의 한계, 민주당의 중도 보수 세력의 무능력과 집권 실패는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제1차 내각의 실패에도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은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다.

일본의 국민은 전후 국가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새로운 대안 사회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전후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한 일본 사회를 되찾는 단기적인 이해 관계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아베 정권은 국가 위기의 대중 심리 속에서 내서

널리즘을 이용해 정권을 장악한 파시즘적 요소를 잉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만은 ‘확인사살’, 아베의 잔인한 작전

2012년 12월 등장한 제2차 아베 내각은 제1차 아베 내각과는 달리 여러 측면에서 세련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먼저 헌법 개정과 안보법안 등의 정치적 과제보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을 높이 쳐들고 국민의 지지기반을 강화했다. 둘째, 미디어 전략을 철저히 활용해 NHK를 비롯한 주요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셋째, 소위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과거 좌파 운동권 세력 출신의 전향자 그룹을 측근으로 활용하면서 반대파들의 논리에 적극적인 대항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넷째, ‘일본회의’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의 멤버를 내각에 전면 기용해 각 분야에서 보수 우익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제2차 아베 내각은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에서도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몇 개월에 걸친 회의 끝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한국 식민 지배 거부’ 아베 담화의 의미

첫째, 아베 담화는 역대 정권의 담화를 계승했다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성격은 전혀 계승하지 못했다. 담화를 분석할 때 침략 전쟁의 성격, 식민 지배의 인식, 반성과 책임의 표현이 핵심 요소다. 아베 담화는 ‘침략 전쟁’에 대해 일본의 주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세계 열강들의 식민지 각축이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는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표현해 왔다”는 과거형으로 표현했다. 아베 총리 자신의 언어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형태는 피했다.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부터 결별해야 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다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1910년 강제 합병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어

둘째, 연합군과 중국에 대해 전쟁에 대한 사죄는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아베 담화는 한국에 대해서는 교전 국가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식민지 영토였다는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1910년의 강제 합병에 대해서도 강제성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식민 지배였다는 인식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인식은 전후 보상 과제에 대해서도 연합군 포로와 중국에서의 일본 민간인 잔류, 시베리아에서의 일본군 인의 억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동일한 문제에 연관된 조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후 보상의 추가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담화 전체에서 두 곳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아베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은 채, 아베 총리가 유엔 및 미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전쟁과 여성의 보편적인 피해 문제로 대체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의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점에서 해결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 담화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보상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었다. 다만 이후 ‘아시아 여성기금’을 실현했다.

이외에도 아베 담화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ODA의 군사적 전용을 추진하면서도 ‘적극적 평화주의’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아베 담화는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모순된 표현이 많고, 아베 총리가 역대 발언해 왔던 내용과의 괴리도 심각하며, 실질적인 정책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진심 어린 담화라고 보기가 어렵다.

아베 담화에 대해 일본의 지식인과 언론조차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도 없고, 문제

의식 및 철학도 부족한 담화’라고 지적하면서 ‘이럴 거라면 무엇하러 발표하였는가’라며 혹평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의 안보 법제는 ‘위헌’

아베 담화는 안보법제 정국과 맞물리며 애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이 추천한 헌법 학자조차 안보법제는 위헌이라고 지적했으며, 안보법제 처리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국회 심의 일정을 9월 말까지 연장해, 아베 담화는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회기 중의 담화가 돼 버렸다.

이러한 연유로 아베총리는 안보법제의 통과를 위해서도, 야당과 주변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당위 속에서 결국 타협적인 담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 담화 속 “러일전쟁은 아시아의 식민지 해방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극우 세력에 대한 배려와 ‘식민지, 침략, 반성’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삽입하면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한국에 대한 배려는 일체 보이지 않는 담화였다. 이러한 아베 담화의 내용에 박근혜 정권의 대일 외교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아베 담화는 애초의 기획과는 달리 외부의 압력과 주체의 흔들림에 의해 ‘실패한 쿠데타’ 작품이 돼버렸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실패한 쿠데타지만, 한국만은 정확히 확인 사살한 잔인한 작전이었다.

아베 내각과 미국

아베 담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원칙론적 입장을 볼 때 의외의 반응이었다. 이것은 9월 이후 전개되는 대중, 대미 외교와 함께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을 포함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겠다는 포석으로 엿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좀 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안보법제와 북핵 위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직결돼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재편이 단일 전장 개념에 입각한 한·미·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의 대일 외교가 역사 문제만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지점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베 내각의 안보 법제 강행처리는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의도라기보다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헤노코로의 미군 기지 이전과 안보 법제의 처리는 아베 내각의 생명줄과 같다.

만약 이 두 사안의 해결이 어려워 보이면 아베 내각의 연명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이 ‘묻지마 강행 처리’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과 그 압력을 이용하면서 안보의 자주 노선을 추구하려는 보수 우익세력의 이중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일체의 무력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9조의 틀 속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개별적 자위권에 한해서는 헌법의 해석을 바꾸면서까지 그 행사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화했다.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 개정 이후에는, 자위대의 미군 지원에 대한 무력 행위를 개별적 자위권 영역의 틀 속에 꿰맞추기 위해 여러 특별법과 궤변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궤변이 국민에게 통용되었다. 일본 국민이 헌법9조의 틀 속에서 개별적 자위권적인 무력은 제한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총체적인 전쟁 참여가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은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민당 내의 보수 세력의 기본 원칙을 믿어왔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을 설득 하지 못하는 아베

하지만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다 라고 주장하는 법제처의 관료를 해임하고, NHK의 사장을 우익 인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나서 내각 결정의 형태로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5월 아베 총리의 방미 후 합의한 미일 신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동맹국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제3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도 가능케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보 법제가 통과되고 나면 헌법 9조에 의해 일본은 제한적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야당 및 국민을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및 일본의 극우 보수 세력에게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이번 기회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 및 시민운동 세력에게도 안보법제의 실현은 전후 일본의 평화 국가를 위한 기본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미국의 전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전쟁 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위기에 빠진 아베 내각을 박근혜 정권이 역사 문제로 고립시키지 않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일 간 관계 개선의 측면보다는 안보법제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며 한·미·일 보수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베 담화의 분석에서 보이듯 한일 정상회담 속에서 아베 내각이 한국에 양보할 수 있는 역사 인식 및 전후 보상 문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30일 10만 명이 넘는 일본 시민이 국회 앞 정문에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에도,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안보법제의 폐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시민의 데모 역량이 부족하기보다는, 첫째 의회 내에서의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 둘째 자민당과 야당 전체를 통틀어 현재 아베 총리를 대체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셋째 야당과 시민운동의 집회가 전쟁 반대 및 민주주의 수호의 구호는 선명하지만,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년 일본인들의 한계

학생긴급행동(SEALDs :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등 젊은 층의 운동 속에 ‘전쟁은 싫다, 평화가 좋다’, ‘민주주의 지키자’ 라는 슬로건은 존재해도, 아시아 침략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슬로건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젊은 대학생들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등장한 이후 보수적인 역사 교육을 받은 세대고 또한 근현대사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세대가 때문이다.

그럼에도 젊은 대학생들 주축으로 한 학생긴급행동의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일본의 전후 사회 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사회 운동이 어쩌면 마지막 희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대중 조직이나 정치 조직에 속하지도 않고 역사 교육 및 사회 과학의 학습도 받지 않은 비정치적인 이들 세대가 ‘민주주의’의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대중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안보법안의 성립 이후에도 일본의 평화운동 및 사회 운동을 이끌어 갈 대중적 기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의 사회 운동이 진정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현 외로 이전하고,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개정하고, 안보법안을 폐기하는 건 이러한 일본의 안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한국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할 때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 대학생들 비롯해 평화 운동이 한반도 분단 모순의 해결과 아시아 냉전 구조의 해체를 일본의 평화운동의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 내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가 일본의 안보 법제 폐기를 위한 한일 연대 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새로운 사회 운동에 한국의 젊은 대학생이 연대하고 이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의 폭주 때문에 안보법제는 성립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일 간의 새로운 평화 세대들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실현해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라는 공동의 과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 위 내용은 이영채 교수님의 동의하에 9/4일, 9/8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 내용을 부분 편집하였습니다.

‘건국절’ 시도와 ‘교과서 국정화’ 음모



김 삼 응
전 독립기념관장

누가 역사를 망치려 하는가

무릇 사필(史筆)은 공정·엄격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춘추필법이 요구되고, 난신적자가 부르르 떨게 만든다.

절대왕정인 조선시대에도 사관들이 쓴 사초(史草)와 실록은 임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없었다. 딱 한번 예외가 있었으니 폭군이라 칭하는 연산군이 재위 10년이 지난 때 ‘가장(家藏) 사초’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명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도 고치거나 실록을 볼 수는 없었다.

왕조시대에도 이처럼 역사의 기록은 공정하고 엄격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조선 왕조실록>이 유엔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고래로 3등급의 위정자들이 역사를 뜯어고치고자 한다. 후세의 평가가 두렵고 세습권력이나 아류정권을 세우기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삭제·변형·왜곡시키고자 한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줄기차게 교과서를 뜯어고치고 역사를 왜곡한 것이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축소 등의 시도는 일란성 쌍둥이와 3등급

정치세력의 역사코메디다.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병탄하고 가장 먼저 서두른 공작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우리의 사서(史書)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초대 총독 데라우찌는 취임하자마자 총독부에 취조국을 설치하고 이른바 ‘불온서적’을 압수하였다.

병탄 이틀 후인 1910년 9월 1일부터 <관보>를 발행하는 기민성을 보인 총독부는 11월에 이미 설치한 취조국을 통해 전국 각 도·국 경찰과 헌병을 총동원하여 조선의 사서(史書)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예술·인문·전기·열전·충의록·무용전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압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총독부는 1918년 말까지 8년 동안 20만 권에 이르는 조선의 사서를 불태우거나 진귀한 자료는 일본으로 반출해갔다. 일제의 조선사서 말살책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22년 12월 총독부는 훈령 제64호를 통해 조선사편수위원회(조편위)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사의 왜곡과 날조를 시작했다.

일제는 조편위를 설치하면서 그 목적이 “제국일본이 조선인을 반(半)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일제가 조편위 작업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지는 총독이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장을 정무총감이 맡았으며, 총독부 주요 인물들과 일본의 대표적인 관학자들을 위원으로 끌어들였다.

한국인 중에는 경학원 부제학 정만조, 중추원참의 유맹·어윤적, 총독부 편수관 이능화 등이 위촉되었다. 또한 이완용·권중현·박영효·이윤용 등 대국노들이 편수회의 고문이 되었으며, 최남선·이병도 등이 편수관 등의 직책을 맡았다.

조선사 왜곡의 분량이 많아지면서 일제는 조편위를 조선사편찬회(조편회)로 격상시키고 일왕의 칙령으로 설치 근거의 격을 높이면서 다수의 조선인 어용 사학자들을 참여시켰다.

일제는 1937년까지 27년 동안 무려 97만 5,534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조선사> 35권, <사료총서> 102편, <사료복본> 1,623편을 편찬하였다. 이 방대한 조선사 기술의 기조는 철저하게 사대주의, 당파성, 문화적 독창성 결여를 과장 확대하는데 주어졌다.

일제의 조선사 왜곡 날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땅을 속국으로 지배하려는 야심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본래부터 북반부는 중국의 속국이요, 남반부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억지를 ‘역사적 사실’로 꾸미고자 온갖 괴변과 망설을 끌어들었다. 일제의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介)가 1945년 9월 조선을 떠나면서 “조선이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일본은 조선에게 총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었기 때문이다.”란 망설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망설은 적중하고 있다.

해방 후 한국의 역사(국사)는 조편회에 참가했던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근년에는 뉴라이트계열의 관학자들에 승계되었다. 이들의 역사관은 ‘조편회’에서 편찬한 내용이 주조가 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이 여기에 뿌리를 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는 식민사관의 원류가 되고 친일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건국절’ 운운은 몰역사의 극치

박근혜대통령은 광복70주년의 8·15경축사에서 분명한 어조로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동안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 족벌신문, 어용지식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을 박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단히 몰역사적인, 반역사적인, 그리고 반헌법적인 언급이었다.

건강한 야당이 존재한다면 탄핵소추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전문은 헌법정신과 원리가 집약돼 있는 문헌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8·15건국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한다. ‘임정법통’ 계승은 국민적 합의이고 헌법정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사는 제헌헌법과 4·19혁명 후 개정된 헌법 그리고 6월 항쟁 후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현행헌법만이 정당성이 부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독재자가 임의로 또는 권력연장을 위해 변칙·날치기·계엄령 아래서 만들어졌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 승계를 명문화하였다.

임시정부 법통승계는 헌법 전문 선언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 보수 세력이 우상으로 섬기는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자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30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언명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문화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1948년 9월 정부수립 후 발간한 관보 제1호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라는 임시정부 연호를 이어서 사용하고 ‘대한민국 재건’이라고 표기하였다. 헌법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 임시정부의 연호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건국절’을 내세우는 데는 그들만의

이해관계와 배경이 따로 있다.

한마디로 보수 세력의 ‘혈통’인 친일을 세탁하려는 속셈이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유지되는 한 친일문제는 끊기 어려운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8년 8·15를 건국절로 삼아 친일파들을 건국의 주도세력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이 ‘건국’의 적자노릇을 하려는 술책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이른바 건국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살펴보자.

첫째, 헌법정신을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반헌법 사태가 발생한다.

둘째, 임시정부 27년의 역사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제외된다. 그리되면 일본에 대한제국 병탄의 책임도, 성노예문제도,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이 가장 바라는 바이다.

셋째, 남북 통일 문제는 역사성을 잃게 된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동년 9월 9일 건국했으니 전혀 딴 나라가 되어 통일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찾을 수 없어진다.

넷째, 역시 헌법위반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었는데, 48년에 각각 분리 독립한 북반부의 영토권을 주장할 헌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다섯째,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무국적자가 되고, 1910년 국치로부터 정부 수립 일까지 38년의 국백 단절이 나타난다. 27년의 임시정부와 내외의 모든 독립운동, 심지어 미군정 3년도 딴 나라의 일이 된다.

여섯째, 매국노·친일파·부일협력자·간상배들의 죄상을 밝히거나 쫓값을 물을 수 없다. 딴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생긴 중동·아프리카 등 신생국가와 같은 나라가 된다. 헌법전문 초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과 배치된다.이 역시 반헌법적인 행태이다.

박근혜정부가 기를 쓰고 건국절을 시도하는 이유와 배경을 압축하면, 선대들의 친일 죄상을 덮고, 이들을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환치하면서 후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역사왜곡이고 정치적 곡예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선대들의 죄상을 덮고자한다.

박대통령은 아베 일본총리의 군사대국화와 역사왜곡을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건국절 시도와 국정교과서 추진을 두고 똑같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일본의 한국침략 미화와 여성 성노예 부정 등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고대사 왜곡에 시달리고 분노해온 국민에게 이번에는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정교과서 전환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헌법

우리 국민은 역사왜곡의 3각 파도에 휩쓸리면서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일제의 식민통치와 친일행위를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의 독재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반민주의 ‘정권교과서’를 만들 고자 시도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교과서 국정화는 정부의 건국절 시도와 같은 뿌리에서 같은 줄기로 진행되는 역사적 퇴행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어용지식인·관변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의 목표지점은 딱 한가지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이론적 논거로 삼아 일제의 식민통치와 친일을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의 역사적 죄상을 면탈시킴과 더불어 이들을 건국세력으로 내세워 그 후예들이 영구집권하려는 정치적 술책인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5년 근대교과서가 제작된 이래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은 줄곧 검인정체제였다. 그러던 중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일으키고 1974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검정제도를 전면 폐지, 국정교과서를 사용토록 강제하였다.

유신헌법이 국정 교과서를 강제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반공과 민족중흥이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보다 유신체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고, 전두환의 5공체제와 노태우의 6공시대를 거쳤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중·고등학교 때에 유신예찬과 민족중흥을 배워온 학생들이 유신과 5공 타도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다.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는 2007년 6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전면 폐지되었다. 33년 만에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회복한 교과서 발행이 지금 다시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정부·여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고집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좌파세력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서” (김무성)라고 한다. 정의로운 사람들을 좌파로 몰고, 친일파·독재정권 비판을 ‘부정적 역사관’이라 매도한 것이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펴내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고 북한·방글라데시·이란·이라크·시리아·수단 등 독재국가이거나 내란 또는 전쟁 국가들뿐이다.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인데도 교과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검정제로 바뀌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몽골·체코·폴란드 등은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하나 같이 검인정체제로 돌아왔다. 다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사(자국사)’를 검인정으로 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지식인·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프랑스, 스웨덴 등이 검정제보다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이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나고 있다.

선진화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후진적인 교과서 검인정을 선호하는 것은 교과서까지 자기를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분장하려는 정치적 욕망 때문이다. 헌법정신의 위배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과 학문의 다양성을 억누르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역사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체제는 낡아빠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④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역시 헌법 위배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계열이 제작한 교회사관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불과해 크게 수모를 겪은 수구세력이 이번에는 검인정이라는 더욱 위험한 칼을 뽑아들고 범정부적인 조직을 동원할 태세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은 벼랑으로 몰리게 되고, 내일의 일꾼인 청소년들이 편향되고 획일적인 교과서를 통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대신 친일과 기회주의를 삶의 지표로 신봉하게 될 지 모른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분위기를 타고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역사과정 연구팀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40%로 줄이는 시안을 만들고, 이명박이 세운 역사박물관은 새 부스를 제작하여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찬양하고, 뉴라이트의 대표적 학자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두고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고 말했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이들의 전조(前兆)에서 국정교과서 체제가 보일 한국사회의 어두운 미래상을 짐치게 한다. 

독립 운동가를 탄압한 친일 대법원장들



최 광 응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광복 70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15대째 대법원장을 배출하고 있는 사법부가 권력3부 중 가장 많은 친일파 출신 수장을 맞이하였다. 강직해야 할 법관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일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1957년 초대 대법원장이던 가인 김병로 선생이 만 70세에 정년퇴임하고 이듬해 법관회의의 추천에 의해 2대 대법원장에 오른 이는 바로 조용순이다. 그는 1922년 서울대 법대 전신인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1926년 해주시방법원 재령지청 판사, 1932년 평양지방법원 판사, 1936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를 역임하고, 1941년 해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변호사 개업 중 1943년 해주부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다. 그는 1945년 광복이 되자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고, 1948년 대구고등법원장이 되었으며, 1953년 대법관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1954년 7대 법무부장관과 1955년 사정위원장(현재 감사원장)으로 승승장구하였다. 그는 1960년 4·19혁명으로 대법원장직을 물러남에 따라 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재직기간 중에도 이승

만 정권이 조작한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사건 등 독재정권의 정치적 격랑에 철저히 휘말렸다. 그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그는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재령지청 근무 중 낳은 장남 조완규는 서울대 총장과 교육부장관 등을 지냈다. 장손 조진원은 장남의 뒤를 이어 연세대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당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3대 대법원장은 5.16 직후 임명된 조진만이다. 4.19 혁명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대법원장 직선제를 추진했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좌절된다. 그래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7명의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법원장 추천인단의 추천 절차를 거쳤다. 조 대법원장은 1923년 경성법전을 졸업한 뒤 부산지법 서기로 근무하던 중, 1925년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26년 경성지법 사법관시보를 시작으로 1927년 해주시법 판사, 1929년 평양지법 판사, 1930년 평양복심법원 판사, 1933년 대구복심법원 판사, 193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943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부장판사 승진 역시 조선인 최초였다. 그의 창씨개명은 朝家庸夫이다. 8·15 광복 후에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기용되었고 1951년 5대 법무부장관에 발탁되었다. 1960년 서울 제1변호사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대법원장직에 도전하였다. 1964년 4대 대법원장에 연임되었으며 65세 정년 규정에 따라 1968년 퇴직하였다. 그는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에서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각각 포함되었다. 그는 3남 중 두 아들을 법조인으로 키웠다. 차남 조언은 4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3남 조운은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사망한 조언은 1979년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중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장본인이다. 조운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했다.

5대 대법원장은 민복기이다. 그는 1913년 민병석의 차남으로 태어난다. 1910년 경술국치 당시 궁내부 대신이던 민병석은 이완용과 테리우치 통감의 사주를 받고 궁중의 한일병탄 반대론을 무마한 매국역적이다. 이후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까지 오른 1급 친일파이다. 일제가 조선 강점 25주년을 맞이하여 1935년 제작한 조선공로자명감(朝鮮功勞者銘鑑)에 353명 조선인으로 소개한 인물이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에서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그리고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장남 민흥기와 함께 포함되었다. 민복기는 중일전쟁이 발발하던 1937년 경성제대 법학과 졸업과 함께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며 총독부 판사의 길을 걷는다. 1938년 사법관시보를 거쳐 1939년 경성지법 판사, 1945년 1월 경성복심법원 판사를 역임하면서 독립 운동가들을 재판하였다. 그의 창씨개명은 岩本復基이다. 광복 후인 1945년 9월에는 경성지법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고, 미군정 하인 1947년 8월 검찰로 자리를 옮겨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 검사가 되었다. 1950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관에 발탁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법무부차관과 서울지검장을 역임했다. 1955년 5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대법원 판사로 기용된다. 이후 그는 1963년 26대 법무부장관 임명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변호사 개업 중이던 1968년 그는 전임 대법원장의 정년퇴직으로 5대 사법부 수장에 올랐고 1973년 연임에 성공하였으며 1978년 정년퇴직하였다. 유신정권은 그에게 퇴직 기념으로 ‘재직 시 질서 확립에 공헌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그는 10년 2개월을 재임한 역대 최장수 대법원장이다. 법무부장관으로도 3년 4개월을 근무하며 역대 두 번째 장수했다. 그러나 그는 1964년 중앙정보부가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자 “양심상 기소할 수 없다.”고 반발한 서울지검 검사들을 힘으로 누른 인물이다. 대법원장 재임 중에도 박정희 정권이 시국사범에 온정적 처분을 내린 현직판사 2명과 법원서기 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반발, 전국 판사 415명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법파동’을 겪었다. 또한 그는 1975년 4월 8일 군법정에서 날조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2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 8명의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음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바로 그해 세상을 떠났다. 특히 그는 1973년 신년사를 통해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구조가 가장 집중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인 이상 사법권의 존재 양식 또한 이에 발맞춰야 함이 당연한 귀결”이라며 유신체제를 예찬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재임 기간은 사법부가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그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2005년 서울대학교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발표한 ‘서울대학교 출신 친일인물 1차 12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는데 차남 민정택이

대를 이어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했다.

7대 대법원장은 유신 말기에 임명된 이영섭이다. 1978년 12월 전임 민복기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수석대법관 이영섭은 4개월 동안 대법원장 직무대리로 일하다가 1979년 3월 7대 사법부 수장에 오른다. 그러나 그는 1981년 8차 개헌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교적 짧은 25개월의 단명으로 임기를 마치면서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등 3명의 대통령을 거쳐야 했다. 박정희 시해사건과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이어진 격변기에서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다룬 그는 퇴임사에서 밝힌 바대로 “오욕과 회한의 나날”을 보낸 것이다. 이영섭은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극성이던 1942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나와 같은 해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듬해 경성지법 사법관시보 근무를 시작으로 총독부 법조계에 발을 디뎠으며 1945년 1월 경성지법 판사로 임명되었다. 광복 후인 1950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1952년부터 이화여대 법정대학 교수로 잠시 외도하였다. 그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조계로 돌아와 대법원 판사로 기용되었는데 임명 당시 대법원 내 최연소였다. 그리고 대법원장직을 포함하면 총 19년 8개월간 대법원에서 일한 역대 최장수 대법관이다. 한편 그는 대법원 판사 재임 중 장준하와 백기완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을 때, 이를 기각하고 최고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중형을 확정하 바 있다. 또한 유신체제 하에서 긴급조치 위반자들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는 등 유신헌법을 정당화 하였으며 2차 인혁당 사건 당시에는 헌법위원(현 헌법재판관)을 겸직하며 긴급조치에 대한 합헌판결을 주도하였다.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판에서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서운홍, 김운행 대법원 판사 등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수의견을 냈다가 법복을 벗었고, 특히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등 큰 고초를 겪었는데 사법부 수장이면서도 이를 눈뜨고 지켜보기만 했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 중 주요인물 89명과 판검사 부문 201명에 각각 포함되었다.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 그중 아들 이기승은 현대그룹 비서실 사장 겸 현대유엔아이 사장을 지냈다. 딸 이기향은 한성대 예술대학원장 겸 의류학과 교수이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정년퇴직 이후 후임 결정이 미루어지자 수석대법관이 약 6개월간 직무대리로 일했는데 그가 바로 김두일이다. 그는 정식으로 임명된 사법부 수장은 아니었지만 최초의 친일파 대법원장(직무대리)였다. 그는 일본대학 법률과를 졸업한 후 1923년 수안

공립보통학교 교사가 되었으나 다시 판임관 공채시험에 합격, 1925년 평양지법 판임관 견습이 되었다. 이듬해 평양지법 진남포지청 서기과 법원서기, 1928년 평양지법 서기과 법원서기, 1930년 평양복심법원 서기 등으로 일했다. 1933년에는 청진지법 판사로 임명되면서 조선총독부 판사가 되었고 이후 광주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일제 말기 충성한 대가로 일본 정부의 훈장인 서보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그의 창씨개명은 卍川斗一이다. 6.25 전쟁 발발 직전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두일은 1958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맡게 된다. 그런데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방관하며, 선거 직후 당선자인 이승만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일축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이승만의 부정선거 뒷수습에 적극 협조했다. 이로 인해 4.19 혁명 이후 면직 처분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의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이상을 살펴보면 김두일부터 이영섭까지 6대, 5명의 대법원장(직무대리 포함)이 사법부를 이끈 총 23년 4개월 중 잠깐 동안의 민주당 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전부가 친일파 출신 수장들에 의한 부끄러운 역사였다. 4.19 혁명 이후 법관 직선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던 배정현 직무대리가 담당했던 13개월이 그나마 자랑스러웠으며 배정현 수석대법관 자신도 일제 강점기 때 변호사 활동만 했던 인물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7년 역사에 친일파 대법원장이 이끈 세월이 그중 3분의 1이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회고록을 마치면서...



김 정 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子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늦가을 무렵,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실에서 이런 저런 낯한담을 나누던 중, 김자동 회장님으로부터 회고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글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글재주가 모자란 자신을 알기에 난색을 보였더니 옆에 있는 곽태원 부회장이 거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1935년 3월 25일 당시 중국 수도 남경 호가화원에서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신 아버지를 따르는 운명을 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자라나는 동안 전전하는 항일의 길을 함께 갔고, 2차 세계대전 세대로서 일제의 패망과 해방정국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으며, 신생 대한민국의 수립과정과 이승만 독재정권에 살면서 패악에 다치기도 했습니다. 장기 12년 독재는 헌정 파괴로 유지했고 정국은 파행으로 이어져 도탄에 빠진 민생고로 인해 백성은 괴로웠으며, 커져가는 원망은 마침내 국민 봉기로 분출되면서 저도 규탄 대열에 끼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붕괴된 민주당 제2공화국에 있었고, 대통령 시해, 신군부 등장 등 역사의 굴곡 속에 민주시대가 왔는가 싶더니 IMF를 맞아 경제위기에 놓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1940년대의 세계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암흑천지에서 세계의 지

성들은 고뇌했고, 루마니아의 사상가 게오르규는 소설 <25시>를 통해 나약한 조국에 탄식하고 자괴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시간에 절망했고, 동서양 진영에 갇힌 힘없는 조국의 비애에 아파하며 인간 파멸의 기계 문명에 관점을 두어 소설 <25시>에 담아 절규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덮친 세계사조로서 저는 바로 이 고난의 25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역사의 질곡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 남지 않는 지금, 거짓과 조작이 난무하는 갈가리 찢긴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회고록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지금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역사는 왜곡 투성이고, 썩은 위세에 눌린 악의 축으로부터 오염된 가치 전도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역사교과서에 침투한 조작의 불순물이 우리의 꿈나무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래, 잘못된 세상을 고발하자!” 이 불품없는 평범한 사람의 회고록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회고록 영역이 너무도 넓어 갈피를 잡는데 힘들었고, 격동의 시대에 변질된 역사적 사건에 한계를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5시 세대의 특이 목격자가 본 것은 암울한 사회상과 부조리로 얼룩진 세상에 대한 고발이 됩니다. 이런 사회상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정 경영자로부터 영향이 컸으므로, 통치권자도 범주에 들어 고발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법.

그래서 회고의 방향 설정에 고심했고 고찰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국회에 기록된 국회사 사초가 있어 제헌국회, 2대~6대로 이어간 4,428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초를 정독했습니다. 오랜 지난 세월을 되새겨 보는 것인지를 기억에 혼란이 생기면 평소 애독하던 양서(良書)를 뒤져봤고, 진실을 쫓는데 최선의 역량을 쏟았다고 자부합니다. 동시에 판단의 기준은 민족정기와 보편타당성에 두어 자신의 편견이 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누르고 자제하는데 애썼고, 특히 힘이 없어 슬픈 이 조국의 궁지에 우선했습니다. 이제 회고록을 쓴지도 어언 2년이 다가오고, 그 사이 다른 일도 생겼습니다.

전시납북국회의원 유족이 모여 사단법인 ‘전시납북국회의원 유족회’를 발족하고 저를 회장으로 앉혔습니다. 6.25사변 때, 납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10만 납북인사는 각각의 분야에서 나라에 기여했기에 김일성의 모시기 작전의 표적이 되어 저 북녘 단절의 땅에 끌려간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진실이 아닙니까?

6.25납침이 시작되자 우리의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 38° 선상에 있는 모든 전선이 맥없이 무너져 일패도지 당하는 판국이었는데, 국방부와 내무부, 육본과 경찰은 터무니

없는 허위보도로 국민을 현혹했으며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정부를 믿으라는 거짓 방송을 틀어놓고 그 시간에 도망을 쳤습니다. 뒤이어 한강 다리를 폭파해서 당시 유일한 퇴로가 끊겨 시민들이 갇힌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막대한 과오를 저질러놓고 되레 납북인사에게 체복 행적을 들먹이며 색깔론으로 덧칠했고, 월북 좌파로 매도하면서 들끓은 세론을 따돌리는 잔피를 부렸습니다. 역사는 흘러 흘러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거쳐 민주투사의 희생을 딛고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납북유족들은 고통 속에 음지에 숨었고, 아직도 불공정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해원(解冤)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결과에 따라 10만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판례가 될 수 있기에 열심히 싸웠습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막강하고 지피지기(知彼知己)해도 이기기 힘든 판에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유족들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의 연유도 모른 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니, 필패의 조건이었지요. 법률 논리로 중무장한 정부 측의 변론은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데 귀착했고, 판세는 속수무책인 듯 했으나 다행히 법리보다도 더 무서운 진실을 저희는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3일 만에 와그르르 무너진 서울 함락의 공방전을 지켜보았고, 적지 3개월간 적지에 갇혀 죽을 고생을 한 생생한 체험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습납침에서 수도 함락까지의 3일간 국방부와 내무부가 취한 대국민 조치들은 허무맹랑한 거짓투성이었고, 바야흐로 우리 영웅무쌍한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통일은 시간문제라 큰 소리쳤습니다. 이러는 사이 서울 사수를 한다던 대통령은 풍자가 빠지게 도망을 친 것이 훗날 밝혀집니다. 정신없이 너무 멀리 도망친 것이 민망했던 지 대전까지 열차를 되돌리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런 정부를 믿고 국회도 수도 사수를 결의하여 덩달아 춤추니 국민은 비로소 놀란 가슴을 달래며 두 다리 쪽 뻗고 자던 그날 밤 한강교를 폭파해서 퇴로를 끊어 버린 것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 정부 측은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이 수복되자 민심은 흥흥했고, 이번에는 분기탱천한 시민 쪽에서 폭발할 조짐이 보이자 다급한 정부는 단지 한강교 폭파 명령 수령자에 불과한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 집행을 했고, 또한 한강교의 잔해가 사진으로 잡혀 절대로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여기까지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어진 백성들은 참으로 순박했습니다. 정부가 속이니 민심은 가라앉았고, 말이 없는 납북인사에게 체복 행적을 들먹이며 눈길을 납북인사에게 돌렸습니다. 오랜 세월 핍박이 무서워 숨어 살아온 저희 납북국회의원 유족회 유족들은 아직도 불공정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해 해원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남북에 따른 책임 소재와 연좌제의 불법 운영이었고, 논쟁의 포인트는 한강교 폭파와 남북 시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정부 측의 변론으로서 그 증거로 전국에 골고루 벌어진 남북통계표를 재판부에 내놓았습니다.

“통계표를 보라. 서울에서만 남북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국에서 남북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강교 폭파와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본질은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입니다. 통치권자의 최고책무는 자국민보호와 국토방위입니다. 이것만은 나라 구성의 절대 요건이므로 대통령 취임 선서로 책무를 다짐받는 장치를 한 것이지요. 재판부가 엄정하고 예의 분석했다면 이 근거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국민 보호와 국토방위책무를 유기한 국정 과오를 봤을 것입니다. 서울은 급박한 상황이라 자국민 보호가 어려웠다하더라도 전라도, 경상도 쪽은 국민 보호 기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의 상황을 짧게 재현해보겠습니다. 남침이 시작되자마자 탱크를 앞세워 쇄도해 내려오는 적 공세에 군 지휘부는 혼비백산 공황상태에 이미 빠졌습니다. 한강교 폭파가 임박한 28일 새벽 2시 무렵, 한강교 쪽은 패퇴하는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인파가 몰려들어 아비규환의 혼란 상태였고, 폭파와 동시에 수많은 시민이 물에 빠지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이로부터 7시간이나 지난 뒤에 적 탱크 2대가 한강교에 도달했으나 후퇴하는 국군장병과 장비, 수많은 시민을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퇴각 명령을 받은 7사단이 한강에 막혀 장병과 장비를 잃었고, 사단장 유재홍 장군은 통분한 심사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군 지휘부가 적 탱크에 놀라 허둥대다가 일으킨 참화였음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한강교 폭파는 남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정부 자료였으나 재판부는 눈 딱 감고, 정부 측 손을 들어주었고 연좌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 변론을 받아들여 1심에서 완패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의 심벌은 균형 잡힌 저울입니다. 만민 앞에 법은 평등하다는



▲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변호사와 대책 협의하는 장면. 모자 쓴 이가 필자

상징이자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구현의 의지이며, 대국민 다짐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유족회는 흔들림 없이 균형 잡힌 저울의 양심을 믿고 항소하였고, 우리 측 변호사보다도 더 당시를 잘 아는 제가 반박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저희 유족의 고통을 체감하고, 정부 측 변호인단과 저에게 진실 공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러 방송국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가족의 생활상과 남북 소견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정부 측 변호인단은 그 안에 약점을 찾아내어 재판부의 진실공방을 호기로 삼고 수락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견(短見)이었고, 말꼬투리를 잡았다고 해서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이 공방은 우리의 완승 국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과 한강교 폭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정부 측이 잡아떼는 연좌제 피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은 이로써 사필귀정으로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판결은 양시론(兩是論)으로 급선회하는 결말이 나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지요. 판결 논지는 이렇습니다.

예고 없는 한강교 폭파로 퇴로가 끊겨 남북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급박한 전시상황이라 만족할만한 조치가 어려웠고, 연좌제로 상당한 사람들이 고통 받은 것도 인정되나 고통 받은 사람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배상 대상이 애매하여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는 우리 원고 측 해석은 이랬습니다. 남북 국회의원 쪽 손을 들어주면 판례에 따라 10만 남북 유족의 막대한 손배소가 예견되므로 정부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한 정치적 배려였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분한(忿恨)도 참작하여 남북국회위원의 국가 기여도와 유족들의 고통에 특정하여 적당한 정치적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권고했습니다. 판결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권고는 정부의 자의적 결정 사항이므로 우리에게서 사실상의 패소였지만 가까스로 버텨온 주머니 사정상 결국 판결문을 위로 삼아 재판은 허망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패소의 악몽에서 깨어나기도 전 지난 7월 17일, 국회 제헌절 행사에 갔다가 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딱 지난 1년 전 이날, 제헌절 행사를 마치고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남북제헌국회의원에게 동격의 상훈 요청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날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나라의 국기(國基)를 잡은 공로로 제헌국회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여 서훈으로 보답한 바가 있었으나, 남북제헌의원들은 배제시켜버리는 처사를 국회사무처에서 처벌했었습니다. 체복 행적을 알 수 없으니 불가하다는 조치입니다. 이 판단은 바꿔 말하면 이북에 끌려가 살아있는 동안 이적행위를 했을지 모르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랏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에서 벌어진 일로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처절이었지요.

법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체북 행적을 들먹인 것은 이북에 끌려 간 남북 인사가 대남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예단을 금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범죄로 봤다면 국회사무처와 정부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정부 측은 입증을 못했고요. 이적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강제에 의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5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위원으로 하는 ‘6.25전쟁 남북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남북 확정 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사)전시남북국회의원유족회는 이중에 남북 확정 판정을 받은 제헌국회의원에 국한하여 동격의 상훈을 요청한 사안이므로 체북의 행위는 강제에 의한 것으로 귀착되며, 강제에 의한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 취지는 민주국가의 자량인 인권보호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 건은 재판 부를 통한 재판 과정도 없었고, 따라서 이적 행위에 관한 판결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사무처는 법 운영의 기본을 침해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기가 막힌 국회사무처의 처사를 바로 잡아 달라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했던 것인데 1년이 지난 오늘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와 씨름한 것으로 잡으면 6년을 끌어온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시 남북 제헌 국회의원 무궁화훈장 요청서류 전달. (2014. 7. 17)

1년 전, 국회의장과 면담할 때, 우리가 요청한 동격의 상훈은 정당한 주장이라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 받은 상태였습니다. 국회의장 또한 국회사무처가 부적격 사유로 내세운 체북 행적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와 견해를 같이 했고, 법률가의 소견도 위법성이 다분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는 추세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일부 남북 인사가 애국열사릉’에 있다는 이유로 변질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의 불가 이유가 진정 이것이라 한다면 동격의 상훈은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며,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훈 결격 사유가 되는 애국열사릉에는 제헌국회의원이 단 한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와 정부는 본건 청원을 처결함에 있어 좀 더 사려 깊고 신중히 다뤄야 했습니다.

남북 인사가 문제의 애국열사릉과 또 다른 재북인사묘역에 계신 것은 계산된 정치쇼로서 연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주화 기운이 만개하던 문민시대에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소모적인 군사적 대치를 풀고 6.15공동 성명으로 남북 간의 화해무드의 훈풍이 불 때, 북측이 서둘러 조성한 묘역이었습니다. 저의는 뻔합니다. 남북 교류가 예상되면서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자, 봐라! 우리는 체북 인사를 이렇게 극진히 모셨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30년이 넘도록 사방에 흩어진 장지에서 망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북측이 선별하는 기준에 따라 애국열사릉과 새로 조성된 재북인사묘역으로 이장해 온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애국열사릉에는 임시정부 요인이 모셔졌고, 이는 김일성의 항일운동 격을 드높여 주는 정치적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런 우국충정의 노정객 불행에 국회사무처는 돌을 던진 것이지요.

조국도, 국민도 통곡할 노릇입니다. 애국열사릉에는 부적격으로 지목된 제헌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고 보니 돌팔매도 방향 착오입니다.

수년간 국회사무처와 접촉한 바에 의하면 사무처는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북제헌의원의 동격의 상훈은 절대 불가로 작성한 느낌이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의 상훈 처리 지시도 담당 창구에 먹혀들지 않았고, 국회의장의 뜻도 무위였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권력이라는 바위에 맞닥뜨리면 계란 같은 을의 신체가 되어 바위라는 갑질에 덩비는 꼴이 되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이 패배는 단지 가슴의 상처 외에도 서글픔, 절망... 이 모든 것이 밀려오는 감정으로,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아픔이었습니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구조적 폐단에 의해 결국 또 쓴 맛은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 유족회의 통절한 신원을 떠맡아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의 연속입니다. 이 쉽지만 않았던 세월은 격랑에 부딪친 꼴이 되어 몸도 마음도 무너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고록을 멈추고, 좌절과 허탈로 기가 빠진 몸을 추슬러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꼭 해야 할 마지막 꿈이 있기에 함부로 몸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꿈은 살아생전에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로서 저에게는 의무이며, 한입니다.

6.25사변이 나던 해, 1950년 7월 10일경, 북측 정치보위부에 의해 끌려간 아버지는 단절의 땅 북녘 하늘에 계십니다. 독립운동 시절, 만 리 가시밭길에 절린 어머니는 서른아홉 한창 나이에 쓰러져 저 머나먼 옛 측나라 땅 중경 화상산에 계셨습니다. 그러던 1986년 문화혁

명 광란이 휘몰아치던 무렵, 유택이 광란에 끌려 사라졌습니다. 여동생 영이는 세상에 짧게 머물다가 따사로운 햇살의 의미도 모른 채 3살 나이에 어머니를 뒤탈라 갖고요.

홀로 성장기를 보낸 저는 마흔 나이에 겨우 인연을 만나 늦살림이 시작되었으나 아내는 못한 남편의 가난에 치여 다인실 병상에 누워 치료비 걱정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도 모르니 저 광대무변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저의 혈연은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보다 더 멀리 흩어져 저에게 한의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아마도 평균 수명을 넘긴 저의 질긴 목숨은 이 뽕뽕이 헤어진 외로운 영혼에게 편히 쉬게 하는 안식처를 지어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라 여깁니다.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고, 저는 벌써 설레고 있습니다. 자리는 산을 배경으로 잡고, 계곡물 흐르는 자연경관을 터의 첫 조건으로 삼을 것이며, 이 숲속에 전원주택을 지어 넓은 창문을 세워 서재로 꾸밀 것입니다. 창가에 밤이 오면 아버지별, 어머니별, 아내별, 동생별을 쫓으며 무한 천체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쏟아지는 무수한 별빛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이 땅에 앉을 테고, 수십만 광년의 먼 고향에서 달려와 지금 막 땅에 쉬는 빛도 있을 것이며, 몇 광년의 가까운 별에서 온 이웃사촌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네 천체 계열의 중심 별, 태양에서 쏘는 햇빛이 지구까지 달려오는 데 드는 시간은 고작 8분. 밤마다 이 별빛들이 쏟아내는 성무(星舞)는 우주라는 장엄한 무대를 조망하는 것이니 얼마나 외경(畏敬)의 경지겠습니까? 이 감동은 산촌에 가는 이 만이 갖는 특권일 것입니다.

이 모든 형상은 천체의 운동 섭리 지시를 따른 것이라 인간 한계 밖의 일이지만 인간 감성으로 와 닿을 것이니 아웅다웅 풍진의 속세에서는 맞볼 수 없는 기운일 것입니다. 저는 기어이 그곳에 가고 싶어 산촌에 가려고 합니다.

이곳 계곡 물줄기 따라 널브러진 돌멩이가 되는 것도 괜찮겠지요. 이 볼품없어 보이는 돌멩이들은 계곡물에 부딪쳐 졸졸졸 산행하는 인간들에게 자연의 노래를 들려주는 소중한 악기가 됩니다. 스쳐가는 바람의 강도에 따라 대자연의 존재들이 저마다 내는 다양한 소리가 합주곡이 되어 공허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 속의 전원주택 꿈은 저에게는 벽찬 과제 이기는 합니다. 언뜻 주제 모르는 헛 밋을 떠는 허황된 망상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적막강산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이 주는 꿈의 날갯짓, 그런 동화 같은 꿈이 있기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눈부신 혜택을 빼면 아주 소박한 작은 꿈입니다.

군살을 죄다 빼고 소요예산을 뽑아보니 허리띠 졸라매고 텀비면 6,7년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기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뜻인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다 까먹어 버렸으니 잔명에 쫓깁니다.

얼마 전, 길담서원 모임에 이야기꾼으로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도 어수선하고 옛날에 살기는 어려워도 아름다웠던 동방예의지국이 무너진 것에 한숨 쉬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잘못의 발원을 거슬러 가보니, 반민특위가 보이더랍니다. “바로 여기였구나!” 모임 여러분은 그곳에 민족정기 회복 작업을 꾀방 놓은 악의 뿌리가 널브러진 것을 봤다고 합니다. 길담서원 모임은 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통해서 반민특위의 중심에 있었던 김상덕 위원장 아들인 저를 찾았고, 잘못된 역사를 통해 잘되는 반면교사로 삼아 저의 말을 듣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지요. 보통 모임을 하면 끼리끼리 모여 치맥파티나 불고기 소맥파티, 아니면 뷔페에 모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질편한 수다를 떨다가 스트레스를 풀고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모임은 달랐습니다. 의식이 바르게 서있었고, 기강을 가늠하며 나라 걱정엔 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남다른 향기를 맡고 절로 초청에 끌려갔습니다. 반민특위를 주제로 하고, 해방 정국 때 지근거리에서 본 영도자들의 모습을 끄집어냈으며,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파괴한 제1공화국의 독단전횡 통치를 고발했습니다. 독립운동에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의 불행했던 일생을 과제에 놓고 이것이 온당한 처사였냐고 물었습니다. 모임은 분노하고 침통했으며, 이야기 끝에 나라가 버린 아버지와 뽕뽕이 흩어져 있는 외로운 저의 혈연이 한 곳에 모여 사는 안식처를 짓겠다고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끝날 무렵, 저의 희망사항을 들던 모임 일꾼 이규원 여사가 물어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여사께서는 진작 제 손에 끼어있는 목주 반지를 보고 자신도 가톨릭 신자라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고마운 질문에 만장을 메운 모임 손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소



▲ 아버지에게 자손을 설명하고 있는 필자

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은 6,7년. 7년만 주님의 부르심을 늦추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아멘.” “주님, 이끌어주소서... 아멘.”

이 믿음은 신앙의 꽃입니다. 저는 이 부탁에 대한 믿음을 안고 길담 모임의 긴 배움을 받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강촌에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면 미뤄왔던 회고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 자식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고 꼭 알려야 하는 사연이 더 있어서입니다.

2006년 10월 1일, 이 날은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숙원 사업이 어렵사리 성사되어 재북인사묘역에 참배한 날입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영전에 불효자식의 못난 짓을 용서 구했습니다.

2009년 7월 11일, 임시정부가 꿈 꾸던 험난하기만 했던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은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의 좁고 어두침침한 모습에서 구국충정의 노정객들의 남루한 처지가 보였고, 남경 호가화원 한 칸에 서서 생가가 허물어지는 눈앞의 장면은 인생 허무의 애에 겨워 한동안 멈춰 서게 했습니다.

임시정부가 꿈 꾸던 마지막 여정인 중경에 이르러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화상산에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중국 문화혁명의 광란에 휩쓸려 유택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화상산 공묘 제단에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며 엎어져 대성통곡을 터뜨렸던 일, 세 살 나이에 짧게 머물다 떠난 막내 영이의 사연 등등 들춰야 하는 기억이 너무도 많습니다. 병상에 누워 다인실 병실조차도 마음이 쓰였던 불쌍한 내 아내.



▲ 평양재북인사묘역 아버지영전에 참배하고있는 필자와 필자의 누나. 남과 북 방송국에서 영상에 담느라 주변이 어수선하다.



▲ 중경화상산 옛 묘역 어머니 묘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선 필자

저는 이때를 자녀들에게 꼭 알려야합니다. 못난 남편과 반려하며 사는 동안 그 삶 속에 근검절약과 수능천석(水能穿石)의 가훈이 있었기에 견뎌냈고, 이런 사정들은 듣는 자식들에게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고록 작별 인사를 하던 도중, 예정에 없는 글을 더 보태게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지금 정가에서는 이상한 여론몰이가 일고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변영의 열개는 이승만이 만들었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국부로 모셔서 잘못된 역사를 재조명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역사를 역주행 하면서까지 공론화를 꾀하는 여론몰이를 보면 지난 일제 강점기 때의 매국망령이 떠올라 섬뜩하게 합니다. 지각 밑에 숨다가 잇을 만하면 대지를 흔들어대는 여진(餘震)이 이번에는 강도 7° 이상의 파괴력으로 이 나라를 강타할 것 같은 불상사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춘 바가 있지만 그 시절을 모르고 자란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강진의 불꽃이 튀지 않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 걱정이 들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으뜸법은 헌법이니 만법 앞에 우선하는 것은 법리의 기본이겠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을 건국의 원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948년 정부 수립해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연력(年歷)에 공식 사용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당시 공문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로, 건국대통령론은 역사에 위배함이 드러납니다.

혹자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니 합당하다고 억지 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대통령은 합법적 탄핵을 받고 쫓겨났으니 당연히 원인 무효입니다.

6.25사변 때, 우리나라는 북의 기습 한방으로 와그르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최고 책무는 국토방위와 자국민 보호입니다. 이는 나라의 절대적 요건이기에 대통령 취임에 앞서선서로 책무를 다짐하는 장치를 한 것으로서 이 선서의 책무에 충실했다면 세계 최강 미국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는 전력상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보는 것이 전쟁의 이치입니다. 대통령은 국토방위의 통치 난맥으로 책무를 방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 근거는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남침 동향을 포착하고도 무기 원조를 꺼린 것은 이 대통령의 파시스트 성정 때문입니다. 무기 원조의 힘이 민주 헌정 파괴 쪽으로 쓰이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서 이 대통령은 임시수도 부산 의정단상에서 이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산은 초토화되었고, 십만 인사의 남북, 백만이 넘는 인명 살상, 도시는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미약한 산업시설마저도 동력이 무너져 백성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참상이었지요. 이런 통치권자를 두고, 변영의 열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지도자의 위상으로 볼 때, 나라의 내일을 불안하게 합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에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쓰러지는 경제 파탄의 열개를 만든 것이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는 배고픈 그때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었으니 말입니다.

국부론의 억지추향은 이런 대목에서 비뚤어진 사관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정치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전선은 밀리고 밀려 경상남도만큼 오그라든 낙동강 교두보에서 마지막 혈투를 벌이며 우리 청년 학도들이 백척간두에 놓인 나라 운명을 붙잡고 겨우 겨우 버티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의한 북진과 중공군 개입의 1.4 후퇴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연장선상에 있을 때, 임시 수도 부산 국회의사당에서는 대통령의 장기 독재 길을 트기 위한 ‘발췌개헌’이 발의되었습니다. 개헌 의석수가 모자란 이승만의 여당은 경찰의 무지막지한 지원 아래 반대 세력을 강제로 출근버스에 몰아넣어 의사당 구석에 처박아놓고 통과시킨 것이 저 악명 높은 ‘발췌개헌’입니다. 민주국가의 자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체제가 아닙니까? 이 정권은 국민의 뜻을 묻는 대선, 총선 때만 되면 여당인 자유당이 풀어놓은 폭력으로 난장판을 쳤고, 국토방위와 치안유지에 쓰라고 원조해준 무기, 기관총은 유권자에게 겨누어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백골단, 땃벌떼’ 이들이 몰아친 부산거리의 광풍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것이 훗날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어간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전횡 판국입니다. 국부는 모름지기 덕망이 지고지선하며, 백성을 선정으로 어루만지고 고매한 품격이 국민에게 닿아 총체적 동의를 있을 때 절로 추앙되는 것인데, 지금 밀어붙여서 만들려고 합니다. 동의를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재조명’을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여태 국부가 안 된 것은 역사의 잘못 탓이라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을 우리 헌정사에 길이길이 헌정 파괴 만행으로 기록되어 사초에 보존되어 있고, 반민특위 헌법 기관 파괴 사건, 횡행하는 포악 부정선거의 국정운영 등 4.19독재 규탄 의거가 4.19 독재 찬양 의거로 둔갑할 수 없거늘 국부로 재조명하겠다면 역사 조작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교과서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그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별 천하에 어디에도 없는 아베스런 짓은 정의와 양심에 하나로 결집되어 바르게 역사를 사수할 때입니다. 이 대통령의 횡포를 못 믿겠다는 사람은 국회의사를 보십시오. 회고록에서 들춘 비행은 단지 빙산의 일각으로 당장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 잘못된 과거사를 들먹이며, 망자를 욕되게 하는 논쟁에 더는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한가지로 옳고 그름의 구분을 말기겠습니다. 우리의 맹방 미국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 제도를 혁파하는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민주국가 정치”라고 갈파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 교본적 명구입니다.

지난 날,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수도 없이 민주국가의 근본을 흔들어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이런 민주 국가 본질의 힘이 있기에 보존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의 모든 근본은 국민으로부터 발원하는데 국민 분노와 봉기로 배척당한 사람이 국부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주장인가. 이 점에 옳고 그름의 관점을 두어 판단하면 바른 판단이 나오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되돌아보면 대체로 ‘깨달음의 미덕’이 모자란 탓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여와 야는 정책과 비전이 다른 것이 정당의 이치입니다. 같다면 여야가 필요 없겠지요. 국민에게 선택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민주 국가의 조화의 정치인데 우리나라는 사사건건 부딪치고 피를 튀깁니다. 지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깨달음이 없기에 벌어지는 사생결단입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깨달음, 국민이 아파하는 연유의 깨달음, 뉘우침의 깨달음. 이런 깨달음의 미덕이 모자라 붙었다하면 속된 말로 양기주의로 나갑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양기주의 말입니다. 결과, 이긴 쪽은 오기가 뻗쳐있고, 진 쪽은 절치부심 칼을 갑니다.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가 나오겠습니까? 조화의 예술로 물 흐르듯 나오는 깨달음의 정치. 이런 정치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모양입니다. 가는 길에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도 둘러본다고 하네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곳은 일제 강점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임시정부의 첫 수도 자리입니다. 그로부터 26년간 임시정부가 천도한 주요 도시는 남경, 항주, 장사, 계림, 유주, 중경에 이르는 만리장정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독립운동 사적지마다 국가 예산 혹은 지방 재정으로 임시정부 구지 기념관을 다치지 않게 잘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 붐을 타고 부지가 필요해도 임시정부 구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 1/10에도 미치지 않을 때부터 말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행차가 정작 주체국인 대한민국에 기념관이 없는 현실을 깨닫고 기념관 건립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2년이 다가오도록 간도 크게 못난 회고록을 끌고 왔습니다. 힘을 실어준 독자가 있었기에 견뎌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를 괴수로 하고 아소다로, 하시모토 등 지도급 인사와 이성 잃은 극우파의 광풍이 한창 몰아치고 있어 우리의 분기를 두고 있습니다. 2·8독립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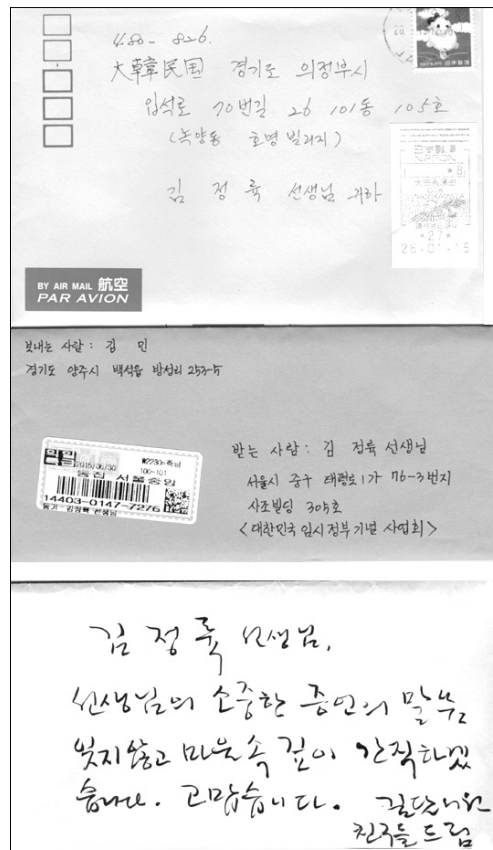
행사로 동경 YMCA에 참석했다가 윤봉길 의사 기념비 앞에서 극우파의 혐오스런 짓거리를 본 적도 있기에 이런 부류를 두고, 공격적 비판을 한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저는 몹시 불편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해 동경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일본 사람도 속한 모임을 이끄는 조영숙 여사가 회고록을 읽고 격려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왕래하면서 이 나라의 잘 정돈된 사회질서, 남을 배려하는 공중도덕 등 옛날에 우리나라가 누리다가 사라진 의식 문화를 보면서 친화적 감정으로 일본인을 밝은 것인데, 조영숙 여사님은 저의 속내를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제천에서 걸려온 여러 차례의 격려 전화, 대학 동아리와의 대화, 대학 총장을 지낸 어느 연구단체의 유력 인사가 회고록에 동의를 표한 것은 감동 받을 만 했습니다.

출판사 여사장님이 길담 이야기 끝에 회고록 인쇄본을 돕겠다고 제의해왔고, 어느 수학 여선생님이 글자의 획 하나하나에 정성들여 편지와 함께 명주 문배주 한 세트를 보내온 것은 잊을 수 없는 고마움입니다. 여선생님은 옛날에 양자강 가에서 어린 자식의 밀린 빨래를 마치고 행상이 짊어지고 다니는 술 유혹에 어린 아이 손바닥만 한 작은 술 한잔에 망설였던 독립운동가의 슬픈 대목을 읽고 명주 한 세트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성 어린 선물을 다가오는 아버지 제사상에 제주로 올려 빼갈 독주에 고생한 아버지의 목 호강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6,7년 후 즈음에 ‘강촌에 살리라.’의 꿈이 이루어지면 대자연 섭리에 영혼을 맡겨 줄줄대는 계곡물 따라 온갖 산새의 소리 향연 속에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그렇게 꾸밈없이 자연이 시키는 대로 회고록을 마무리 짓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 회고록 집필 중 필자에게 보내온 응원의 편지들



▲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초청 강연을 마치고 앞에 흰 옷 입은이가 필자

이때쯤이면 밤마다 탐색하던 내 별자리도 찾아낼 것이니 이런 아름다운 끝 인생이라면 이 몽진의 세상 더 있으라 해도 그 세상으로 끌려갈 것 같습니다.

회고록은 오랜 세월 쌓여온 한의 기록이며, 새벽 시간에 쓴 가족사입니다.

삼라만상이 고요히 쉬는 정적의 시간에 스쳐가는 설움으로 옷소매도 적셨습니다. 그런 사연이 어디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강촌의 꿈은 시작되었으니 꿈이 이루어지면 대자연의 향연은 온갖 시름에서 구원해줄 것입니다.

컴맹의 원고를 정리하느라 애쓴 임시정부 이일선 처장과 안효진 간사에게는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역사 자객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치지나 않을까 근심걱정이 많았습니다. 정신세계의 오염, 학문 세계의 오염. 그런 관점에 염두를 두어 지켜주고 싶었기에 우리 꿈나무를 굳게 붙잡아주는 경구 하나를 들어 회고를 맺으려고 합니다.

수도 서울 천 만시민의 살림을 떠맡아 선정을 펴는데 스스로를 다잡은 박원순 시장의 글귀입니다.

‘水可載舟 亦可覆舟’ 풀이하자면, ‘물은 배를 띄우나 또한 배를 뒤엎을 수 있다’는 뜻으로 거스르는 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천 의병



이 태 룡
의병연구소장, 문학박사

사단법인 의병정신선양증양회 부설 의병연구소에서는 숭고한 의병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후손만대에 의병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62곳에 의병로, 171곳에 의병장로 지정을 요망하기로 하였다.

의병 격전지·유적지는 의병로, 개인의 의병 공적이 많은 유서 깊은 곳은 의병장 개인의 이름이나 자호를 붙여서 기리고자 했는데, 개인의 경우는 멀게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외침으로 인하여 나라가 위태로울 때 관군을 도우거나 관군을 대신하여 외적을 물리쳤던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였고, 국권회복기에는 의병활동으로 ‘건국훈장 애국장’ 이상의 수훈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각지에는 이미 약 10곳의 의병로와 20여 곳에 의병장로를 지정하여 의병정신을 기리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의병로’, 경기 양평군의 ‘지평의병로’, 충북 제천시-단양군 14.3Km 구간을 ‘의병대로’ 등 의병로와 광주 동구의 ‘금남로(금남군 정충신)’, 부산 동래구의 ‘충렬대로(충렬공 송상헌)’, 서울의 ‘왕산로(왕산 허위)’, 제주의 ‘승천로(승천 고사훈)’ 충북 제천의 ‘의암로(의암 유인석)’ 등 의병장 호(시호)를 붙인 의병장로가 그것이다.

의병연구소에서는 국권회복기 의병의 중심지 제천지방의 의병로와 의병장로를 임의로 지정하고, 종전의 도로 이름을 변경 또는 지정해 줄 것을 요망하기로 한 것이었다.

연번	구 분	도로 이름	연관 관계	거리(Km)	비고
1	의병로	의병대로	〈격전지〉	14.3	기존
2	〃	고암로 → 의병로	〈유적지〉	0.984	변경
3	의병장로	봉양읍 의암로	유인석	7.057	기존
4	〃	하소로 → 권용일로	권용일	1.036	변경
5	〃	청풍면 배시론로 → 김상한로	김상한	2.056	〃
6	〃	봉양읍 공전리 ↔ 봉양역	박여성	8.1	지정
7	〃	남산로 → 안승우로	안승우	1.056	변경
8	〃	적성로 → 이강년로	이강년	14.5	〃
9	〃	덕산면 월악리 ↔ 수산면 오티리	이만원	14.1	지정
10	〃	청풍면 인등로 → 이중봉로	이중봉	18.1	변경
11	〃	금성면 월림로 → 정운경로	정운경	3.925	〃
12	〃	청풍면 연론로 → 최옥영로	최옥영	5.726	〃

제천은 의병로와 의병장로가 각각 1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정을 요망한 것은 제천지역이 그 만큼 의병투쟁이 격렬했고, 공적이 많은 의병장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국권회복기 의병활동으로 큰 공적을 남긴 이가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한서(河漢瑞) 의병장은 이강년(李康季) 의진의 좌선봉장·중군장으로 까치성에서 순국했기에 단양군 적성면 방면에, 전기의병 때 명성을 떨쳤던 사상렬(徐相烈) 의병장은 고향 단양읍 쪽에, 주용규(朱庸奎) 의병장은 충주성에서 순국하였기에 충주 쪽에 선정하였다. 그러나 전기 호좌의진의 중군장과 후기의병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원용팔(元容八) 의병장, 후기의병 때 이강년 의진과 연합하여 경북·충북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벌였던 정연철(鄭蓮哲) 의병장, 이강년 의진에서 종사관으로 활약했던 이주승(李胄承) 의병장, 제천 출신으로 1907년부터 의병장으로 안동·예천·영주·풍기 등 경북 북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경술국치 이듬해 교수형으로 순국한 한명만(韓命萬) 의병장은 제천 특정 지역 도로에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 보류했을 만큼 인물이 많았다.

특히 제천시 하소동에서 단양군 어상천 연곡리로 이어진 14.3Km의 도로를 의병대로로 명명했다. 전남 화순의 쌍산의로(6.756Km), 경기 양평의 지평의병로(4.418Km), 경남 의령의 의병로(2.952Km) 등에 비해 특정 지역을 벗어나 국권회복기 의병들의 당당한 의기를 느끼게 하는 이름이니, 의향(義鄉)에 걸맞은 이름이다.

제천은 고려시대에는 제주(堤州)로 전략적 요충지였다. 13세기 초 거란이 몽골에 쫓기게 되자 거란왕자는 대요수국왕이라 자칭하고 고려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였다. 1217년 거란군은 고려군이 개경 주변의 성과 역, 진에 집중 배치된 것을 알고 에둘러 공격하였다. 이미 북계와 서해도는 개경 지역만 제외하고 모두 거란군에 짓밟혔고, 그 해 5월에는 철원·장단·양평·원주·횡성이 함락되었으며, 7월이 되자 거란군은 제주 박달재로 총집결하여 돌파하려고 하였다.

이른 새벽에 적이 과연 고개 남쪽으로 진군하여 먼저 수만 명에게 좌우의 봉우리를 두 패로 나누어 올라가게 하여 요해처를 빼앗으려 하였다. 최원세(崔元世) 등이 장군 선덕위(申德威)·이극인(李克仁)에게 원편을 담당하게 하고, 최준문(崔俊文)·주공예(周公裔)에게 오른편을 담당하게 하며, 최원세와 김취려(金就礪)는 가운데에서 북을 치며 기세를 올리니 군사들이 모두 죽기를 무릅쓰고 싸웠다. 삼군이 바라보다가 또한 큰소리를 지르며 앞을 다투어 쳐들어가니, 적이 크게 무너져 노약한 남녀와 병기·치중을 남자하게 버리고 달아났다.

〈『고려사절요』 제15권, 고종 안효대왕 4년(1217년) 7월조〉

박달재전투의 전략은 상장군 김취려에 의한 것이었고, 그 후 거란군을 물리치고 대요수국을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그는 고려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제천은 충주목 관할 3군 4현 중의 현이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호수와 인구를 보면, 충주목이 1,871호 7,452명으로 청주목(1,589호 6,738명)과 함께 큰 고을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었고, 단양군(235호 724명), 괴산군(445호 1,303명), 청풍군(191호 656명)에 비해 제천은 비록 현이었지만 415호 1,235명으로 꽤 큰 고을이었다.

조선후기에 오면 제천은 충주-원주를 잇는 길목으로 문물이 융성해졌고, 1889년 유중교(柳重敎)(1832~1893)가 제천 봉양에 창주정사(滄洲精舍)을 건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기

호지방은 물론, 영·호남 유학자들이 몰려들었다. 유중교는 특히 화서학파(華西學派) 종장(宗匠)인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으로 김평묵(金平默)과 쌍벽을 이루었던 인물이었다.

유중교가 세상을 뜨자 유인석(柳麟錫)은 자양영당(紫陽影堂)을 세워 주자(朱子)와 송시열(宋時烈)·이항로·유중교의 영정을 봉안하고 화서학파를 이끌게 되었는데, 때마침 일본 군경과 자객들에 의해 왕비가 참살을 당하는 을미왜란(乙未倭亂)(1895)을 당하게 되자 제천과 인근 유학자들은 의병 거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때 경기도 지평(현 양평군 속면) 출신 이춘영(李春永)과 김백선(金伯善)이 지평의 포수 4백여 명을 규합하여 원주 안창리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안승우(安承禹)와 함께 제천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날이 1896년 1월 17일(음력 12월 3일)이었다. 이에 제천의 유생들은 의병을 모아 유인석에게 의병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지평의병과 제천의 병을 묶은 호좌의진을 형성하게 되었다.

2월 17일 호좌의진은 당시 관찰부였던 충주성을 점령하여 기세를 떨쳤지만, 일본군의 거듭된 공격에 의진의 중군장을 맡았던 이춘영과 참모였던 주용규 등이 전사하게 되었고, 포위공격으로 인해 보름 동안 점령했던 충주성을 포기하고 말았다. 호좌의진은 청풍을 거쳐 제천으로 물러나서 싸웠으나 한성에서 의병해산을 종용하기 위해 내려왔던 관군까지 합세하게 되니, 전세는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남산성전투에서 중군장을 맡았던 안승우가 전사하는 등 많은 의병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이에 호좌의진은 북상하여 마침내 압록강을 넘어 후사를 도모하였다.

1905년 6월, 러일전쟁을 발미삼아 군율통치를 하던 일제에 반발하여 원용팔이 강원·경기·충북 등지의 의병을 모아 강원도 영월 주천(酒泉)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전기의병 때 여주의진의 중군장으로 활약했고, 뒤에는 유인석의 호좌의진에서 중군장으로 활약한 후 제천 한수면으로 이거해서 살던 전직 선전관 출신이었다. 그는 격문에서 일제의 군율통치와 고문정치를 비난하고, “농사짓는 사람이나 막일을 하는 사람, 절름발이와 병어리, 귀머거리까지도 떨쳐 일어나라”고 호소하자 제천·청풍·지평·횡성·홍천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주천을 중심으로 모여든 의병들이 1천 명에 이르렀다.

이에 일제는 부왜내각으로 하여금 원주진위대를 출동하게 하고, 일진회원들을 시켜 의병 와해공작을 벌여 습격하니, 주천의병은 어이없이 무너졌고, 원용팔은 횡성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원용팔은 한성으로 압송되어 주차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심문과 회유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일제에 강력하게 항거하다가 이듬해 3월 7일(음력 2월

13일) 옥중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대한의 황제 아래에 일본인 통감을 둔다는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산발적인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기에 원용팔의 순국 소식이 알려지자 제천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민족적 분노가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전기의병 때 호좌의진의 유격장이었던 경북 문경 출신 이강년 의병장은 제천으로 나아가 동지를 규합하여 의병투쟁을 벌이니, 제천 일대는 의병의 함성이 드높았다.

1907년 여름, 제천 인근의 40여 의진은 다시 주천에 집결했다. 각 의진의 장수들은 이강년을 도창의대장으로 추대하고자 했으나 고사하고 있을 때 광무황제가 비밀리 조칙을 내려 그를 도체찰사로 임명하자 도창의대장에 올랐는데, 이 같은 일은 국권회복기 의병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 제천 순국열사 묘역 - 제천시 고암동 산28-9

그 해 7월 19일 광무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고, 이어 8월 1일부터 군대마저 해산되자 이에 반발한 원주진위대 민궁호(閔肯鎬)는 병사들을 이끌고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민궁호 의병장이 해산군인으로 구성된 강력한 의진을 이끌고 제천으로 진출하여 이강년 의진과 연합하여 의병투쟁

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일제는 병력을 급파했지만 민궁호와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에게 패배하고 충주로 물러나고 말았으니 이날이 8월 14일이었다.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은 울분에 쌓였던 배달겨레를 고무하기에 충분하여 크고 작은 의진이 곳곳에서 형성되어 제천으로 몰려들었는가 하면, 강릉·원주·지평·충주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의병들이 별떼처럼 일어나니, 이에 놀란 일제는 5개 사단에서 선발한 14·47·50·51·52연대를 동원하여 강원·경기·충북 각지에 수비대를 설치하여 무자비한 의병살육전을 전개하였다. 영호남 전역에도 3개 사단에서 선발한 1·2·14연대를 동원하여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무자비한 살육전을 벌였으니,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전개하기 2년 전의 일이었다.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 신문의 대한(大韓) 특파원이었던 매켄지(F·A·Mckenzie)는 제천지역의 의병투쟁을 목격하고 기술한 『한국의 비극』 「제천의 폐허」에서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충주나 원주 같은 도시에는 여자·어린이, 그리고 부유층 가족들은 거의 벌써 피난을 가고 없었다. 상점들의 문은 닫혀져 있었고, 주인들이 떠나기 전에 방책(防柵)으로 앞을 막아 놓았으나 일본 군인들이 부수와 약탈을 해 갔다. 제천의 그것에 비하면 딴 도시의 파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천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폐허로 되었던 것이다.

제천은 금년의 늦여름까지만 하더라도 2~3천의 인구를 가졌으며,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평야에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농촌의 중심지였다. 이곳은 영국의 휴양지 바드(Bath)나 첼트넘(Cheltenham)에 해당되는 고급 관리들이 자주 찾는 휴양지였다. 집들은 대개 컷으며 기와집도 있었는데, 이것은 부(富)의 단적인 표시이기도 하다.

(중략)

내가 제천에 도착한 것은 더운 초가을이었다. 제천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산등성이에는 일장기가 눈부신 햇빛으로 선명했고, 일본군 보초의 총검도 반사하여 번쩍이었다. 나는 말에서 내려 거리로 나가 잣데미 위를 걸었다. 일찍이 나는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분주하고 부유하던 도시가 지금은 검고 회색의 먼지와 재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온전한 담벼락 하나도, 대들보도, 깨지지 않은 항아리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매켄지는 의병과의 교전에서 패퇴했던 일본군이 제천을 불태움으로써 인근 부락에 본패를 보여 주려고 결심하여 전 도시를 불살랐다고 기록했으니, 그날의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천안문 광장의 국가(国歌)와 해방군 행진곡



서 순 일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회장

오는 9월3일은 중국의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이다. 이번 대회는 중국의 격상된 국가 위상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징조가 농후한 영향 탓인지 그 어느 때 보다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는 국가의 대행사이지만 주된 활동은 대 열병(閱兵)식이다. 아울러 중요 식순에 중국 국가(国歌)와 육해공군 열병 때 인민해방군 행진곡이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질 것이다. 나는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와 개인 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 제70회 항일 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기념행사를 열렬히 축하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에서 중요 행사를 TV에서 생중계 하면 대부분 시청하는 편이지만 인민 해방군 퍼레이드를 유심히 시청하는 이유는 반주로 연주되는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분이 정률성(鄭律成, 1914-1976) 선생이며 한국 전라남

도 광주시 출신이라는데 연유한다. 정률성 선생은 중국인민 해방군 군가(軍歌) 작곡의 아버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100인 안에 속하는 공로자로서 중국뿐 아니라 남북한 특히 전남 광주시에는 기념관과 거리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유명하다. 더욱이 그의 부인 정설송(丁雪松, 1918-2011) 여사는 사천성 파현(巴縣)에서 출생한 팔로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화란과 덴마크 대사를 역임했다.

정설송 대사가 남긴 회고록에는 정률성 선생의 연안 생활과 일본 패망 후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가서 5년 동안 생활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난8월1일 인민 해방군 건군88주년을 맞이하여 인민일보에서는 정률성 선생 전면 특집을 발행 했는데 딸 정소제(鄭小提)의 “나의 아버지 정률성”이라는 글도 같이 실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률성 선생의 인민 해방군 행진곡과 같이 중국의 국가(国歌)를 작곡한 네얼(聂耳, 1912-1935)씨에게 중국의 유일한 영화 황제 한국 출신 김염(金焰, 1910-1983) 선생이 중국 국가(国歌) 작곡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고사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염 선생은 서울에서 항일독립 운동가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중국 치치하얼시(齊齊哈爾市) 천진 등지로 전전하다. 1927년 상해로 갔다. 그곳에서 갖은 고생 끝에 영화 배우로 성공하여 1934년에는 중국의 영화 황제(電影皇帝)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일본 침략자들은 동북 만주에서 1931년 9.18사건을 일으키고 중국 대륙을 침략할 준비를 할 때 중국 청년들(조선청년도 다수포함)이 항일 의용군을 조직하여 일본군과 싸웠는데 그 인원이 30 여 만 명에 달하였다.

당시 1935년대는 상해는 영화계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호남성 출신으로 진보적인 극작가이며 영화시나리오 작가인 전한(田漢, 1898-1968) 씨가 쓴 “풍운의 아이들(風云兒女)”을 영화로 제작 하면서 그 주제곡 “의용군 행진곡(義勇軍進行曲)”을 네얼이 피아노도 없이 작곡할 때 친구인 영화 황제 김염 선생이 의용군행진곡을 시창(試唱)하면 네얼씨가 하나하나 따라 수정해 나갔다. 이시기는 국민당이 진보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할 때여서 작가 전한(田漢)씨는 구속되었고 제작진들도 피신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고사(故事)들은 금년 93세의 노령인 김염 선생의 부인 진이(陳怡)여사가 8월27일 상해에서 CCTV와 인민일보 기자에게 발표했다.

이 의용군행진곡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가 되었으며 4년 후에 정률성 선생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작사 : 곡목-장영년/作词 : 公木 - 張永年) 이 중국 인민 해방군 행진곡이 되었다. 안중근, 백범 김구선생, 이회영 선생, 윤봉길 의사 등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 지방의 수많은 조선인 항일 연군들은 중국인들도 감탄할 정도로 항일투쟁을 많이 하였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국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긴 영화 황제 김염 선생과 중국 인민 해방군 군가의 아버지인 정률성 선생은 우리 한국 민족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2015년 8월 31일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제공

마전골 귀한 딸 고문 견디며 나라 지킨 “김영순”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오매불망 외동딸 모습 그리다
숨저간 어머니 망우리에 묻히던 날

마전골 귀한 딸 대구감옥 철창에서
모진 고문 이겨내며 엄니 그랬네

고종황제 승하에 슬피 울며
흰 저고리 검정치마 상복 입고
통곡하던 제자들 보듬으며
손잡고 부른 조국의 노래

피로 물든 파고다의 함성
헛되지 않아
광복의 꽃으로 활짝 피었네

김영순(金英順, 1892.12.17 ~ 1986.3.17)

김영순 애국지사는 서울 종로구 마동에서 아버지 김원근, 어머니 전준경의 3남매 가운데 외동딸로 태어났다. 마동(麻洞)은 마전골(麻田洞)의 준말로 지금의 와룡동 일대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때 묻지 않은 곳이었다. 한학자이자 서예가인 아버지는 1906년 정신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한문과 국문, 습자를 가르쳤고 훗날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고모 김원경과 함께 정신여고를 졸업했다. 이후 정신여고에서 사감으로 있을 무렵 고종황제의 국장 일인 3월 3일을 앞둔 3월 1일 오후 1시 무렵 학생들은 배 형질 띠를 허리에 두르고 짚신을 들메(벗어지지 않게 메는 것)로 묶고 뛰었다. 파고다 공원에는 시민들과 정신여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숙명, 이화, 진명 등 학생 4천여 명이 모여들었다. 교장은 김영순 사감의 책임을 물었으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립만세운동에 김영순 애국지사도 격려하며 합세했다. 이날 만세 시위운동으로 정신여학교 학생 60여명이 잡혀 들어갔으며 김영순 애국지사는 이들을 위해 사식을 날마다 넣어 주고 뒷바라지를 했다. 또한 비밀결사 조직인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담하여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잡혀 김영순 애국지사는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러야 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을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전 5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 『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 등이 있으며 친일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외 다수.



영화 <암살>, 허구적 세계의 합목적성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최동훈 감독의 <암살>은 1930년대 일제 치하의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다. 영화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임무를 받고 일본 고위 장성과 친일파를 암살하기 위해 파견된 세 명의 비밀요원을 비롯하여 그들의 임무에 운명적으로 얽히게 된 또 다른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허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다루고 있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실제 인물들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면서 영화의 장면들을 우리 근현대사의 단편적인 고증이나 재현처럼 보이게도 한다.



좋은 흥행 기록을 기록한 전작처럼 감독은 흥미 있는 이야기와 적절하게 긴장감을 가진 연출, 배우들의 개성을 잘 살린 인물들과 외국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은 미술 소품의 완성도 등을 통해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영화를 다시 만들어냈다. 다만 전작 <도둑들>이 요란 법석한 범죄물로서 장르 영화의 범주에 안전하게 포함된다면, 영화 <암살>은 상업적인 극영화의 특징들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근현대사의 논쟁들을 직간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테면 <암살>은 상해임시정부, 의열단, 조선의용군을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들과 반민특위와 같은 어느새 잊혀져가고 있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관객들은 약산 김원봉이라는 큰 비중을 가진 영화 속 인물이 왜 이제껏 국사교과서 속에서는 낯선 이름이어야했던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객들은 영화와 역사를 혼동하거나 영화가 지니는 주제의식을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해야 할 판단은 흥행요소와 허구적 설정으로 가득한 영화 한편을 감상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도 없다.

영화는 다만 스스로 온전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려내는 세상을 되도록 그럴듯한, 일어날 수 있을만한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특징을 소설에서는 ‘픽션성’이라고 부른다. 즉, 이야기 속의 사건들은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인물, 배경과 같은 설정들은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진실처럼 보여 질 필요가 있다. 하나의 허구적 세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 사이에 일관성과 함께 어떤 법칙과 원칙들이 올바르게 작용하여야 한다. 잘 만들어진 창작물이라면 우선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설득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허구적 세계의 합목적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화 <암살>의 결말에서는 반민특위 재판 장면에서 일본의 밀정을 피고로 한 판결이 옳지 않았을 때, 영화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인물들로 하여금 제2의 암살 임무를 수행하게끔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친일청산이 영화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영화 <암살>은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 상식 혹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만한 원칙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허구 세계를 지배하는 합목적성은 현실에서는 부재한다.

사실 허구적 이야기 혹은 허구의 세계를 만드는 일은 작가의 무리한 의도나 작위적인 전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좋은 이야기 속에는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과 의미들이 담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은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를 함께 지탱하고 정교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영화 <암살>이 상해 조계지의 이국적인 풍경과 독립군 부대의 무장이나 옷차림 등을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단지 때깔 좋은 영화를 위한 걸치레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과거를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로 재현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의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는 연출가로서 감독은 단순한 기교들만이 아닌 어떤 믿음에 가까운 자세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현실의 세계를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혹은 일어날 수 있을법한 어느 한 사건의 단면을 자신의 창작물 속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순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이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공통의 노력으로 이어지기 못하고, 각자 속한 집단과 계층에 따라 세계에 대해



▲ 영화 <암살> 중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 단순한 무관심 이상의 것이 아니게 된 현실에서, 과연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 답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작가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비롯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시도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복잡하고 파편화 돼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떤 감독들은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보다는 보여 주지 못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가진 시선의 한계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영화에 담아내려고 한다. 이를테면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는 연출자 자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거나 혹은 현실에 충분히 개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작가 팀 헤더링턴의 작업 세계를 그린 <전선으로 가는 길>이나 빔 벤더스 감독의 <세상의 소금>과 같은 영화들이 그러한 자기성찰적인 작가의 입장을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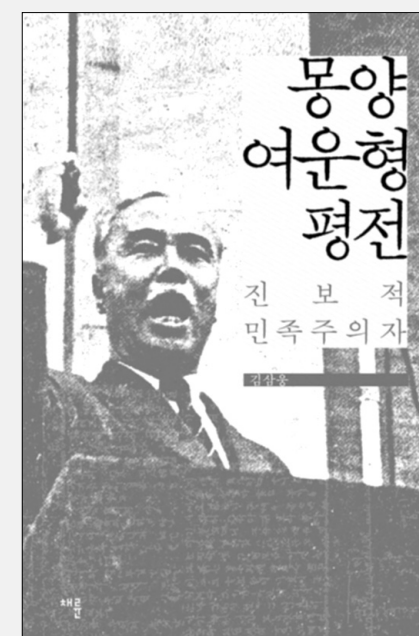
그리고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역사적 사실 관계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영화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대한 가상의 특공대 이야기를 그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Inglorious Bastards>(2009)의 경우는 역사에 대해 실제 일어난 일과 일어났어야 했던 일을 기꺼이 충돌시키며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아직도 그렇게 다양한 접근을 해볼 여유를 가진 주제가 될 수 없는 것 같다. 영화 <암살>의 독립군 이야기나 근현대사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과감한 다시 쓰기를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과연 왜 필요했던 것일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모두 이름 없이 왜 잊혀져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근현대사가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원칙과 함묵적성을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해방 전후 좌우의 대립과 외세의 이해관계들 속에서 왜곡되고 굴절된 우리 역사의 밑그림에는 여전히 많은 괄호와 빈자리들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몽양 여운형 평전

- 진보적 민족주의자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채륜 • 쪽 수 | 396쪽



여운형은 친일파인가?

냉전 시대는 종결됐지만 휴전국 대한민국에 서는 여전히 이념 대립이 심각하다. 이해 없는 갈등과 비난만으로 얼룩져 있다. 사실 이념 간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지금보다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던 시절, 이를 넘나들던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바로 여운형이다.

그는 시대에 한발 앞서 민족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했던 지도자였다. 하지만 뛰어난 사람 곁에는 늘 시기가 뒤따르는 법. 그의 앞길에는 걸림돌이 많았고 폄훼와 모함도 적지 않았다. 우파는 그를 좌파라고, 좌파는 우파라고 했으며 때로는 중도파 또는 기회주의자라며 따돌림 되었다. 일본 정계의 거물들과

만나다 보니 친일파로 오해받기도 했다.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였기에 의도에 따라 그를 좌경 이념으로 색칠하고 일제 말기 반민족행위자로 낙인하려는 자들이 없지 않지만 여운형을 특정한 이념의 따옴표로 분류하기에는 활동 영역과 무대가 너무 넓고 그 그릇이 커서 쉽게 묶이지 않는다.

그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된다. 바로 일제에 짓밟힌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 여운형에게 타협은 있어도 원칙을 깨는 일은 없었다. 여러 집단을 넘나들었지만 그는 친일파도 중화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친소주의자도 아니었다.



오직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래서 이런 그를 저자는 단호하게 ‘진보적 민족주의자’ 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책 『몽양 여운형 평전』에서는 이렇게 이념과 사상보다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험난한 길을 걸었던 여운형을 만날 수 있다. 격동의 시대, 다양한 이념과 인물들을 편견 없이 만났던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만나보자.

시대를 앞선 독립운동가 손기정의 일장기를 처음 말소하다.

베를린 올림픽 당시의 일장기 말소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다. 이를 『동아일보』보다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조선중앙일보』,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을 당시였다. 사건 후 그는 일제와 타협을 거부하고 신문사를 폐간시킨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담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그는 늘 비굴함이 없이 당당했다. 오직 굳은 신념과 목표 아래 정진해 갔기에 그의 행보에는 늘 ‘첫 번째’라는 표현이 붙었다. 가장 먼저 근대적인 정당을 창당하고 가장 먼저 3·1혁명 추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앞장서기도 했다. 광복 직후엔 ‘조선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첫째로 꼽혀, 미군정의 극비 보고서에는 “남쪽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국내 파 여운형이 당선”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정도였다.

그는 늘 한발 앞서 독립운동을 개척해 나아갔다. 국내외를 막론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친 것이다. 모스크바 원동피압박민족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여하여 러시아 혁명 대표들을 만났고 중국 신해혁명의 지도자 손문의 권고로 중국 국민당에 가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본의 초청에 응해 고위 정객들을 만나, 총독부 고위층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모든 집단이 각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그와 만났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상대가 어떻든 여운형은 절대 위축되지 않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조선 독립을 외칠 뿐이었다.

뛰어난 지식과 웅변실력을 갖고 있던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세력도 많았지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선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했다. 당시 상황과 연관 시켜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한 행보였다. 훗날 셀 수 없는 테러와 암살 위협에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민족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수맥에 흐르는 정신은 진보적 민족주의였다. 정관매진(正觀邁進), 즉 ‘바르게 보고 힘써 전진하라’는 뜻이 담긴 휘호를 그가 즐겨 썼던 데서도 읽을 수 있듯 그의 사상은 늘 곧



았으며 강직했다. 이런 생각을 기저에 두었기에 조선 독립, 좌우합작이라는 목표를 두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여운형은 살아있는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운형의 행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민족을 향한 애정이다. 여운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그것이었다.

그가 우무학당에 재학하던 시절 가정의 불행이 잇따라 찾아왔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내가 사망. 몇 년 뒤 집안의 중심인 어머니마저 사망하게 된다. 그에게 닥친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해 을사늑약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곧이어 홍화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을 가르치던 민영환마저 자결하게 되어 그가 채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가족과 조국을 잃은 슬픔에 아버지가 먼저 생을 마치게 되었다. 가족과 조국을 모두 잃은 것이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조국은 가족과 다름없었을지도 모른다. ‘혈농어수血濃於水’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뜻이 담긴 항일독립투쟁 이래 그가 지켜왔던 휘호에서도 이를 느낄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피를 나눈 가족 같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 말고는 모든 것이 겉가지에 불과했다.

우리 시대에 과연 그런 인물이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듯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이웃나라의 역사 왜곡과 외교정책에 휘둘려 갈피를 못 잡고 있고 해방 후 몇 십 년이 흘렀음에도 친일파는 청산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현 대한민국도 결코 국민이 행복할 수만은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부 사람들이 폄훼하는 그의 이념을 넘나드는 행보, 그중에 특히나 일본의 초청으로 적도인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와 언론, 학계 인사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열변을 토하며 당당하게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던 그를 보면 현시대에도 여운형과 같은 굳은 신념과 담대함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의 이른 죽음이 더욱 안타까워진다.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졌으면 한다. 여운형이 그랬던 것처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극에 치달은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민족주의’ 일지도 모르겠다.



조국이 버린 사람들

-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의 기록

• 지은이 | 김효순 • 출판사 | 서해문집 • 쪽 수 | 440쪽



“재일동포 조작 간첩 피해자들이 당한 억울한 사정과 당시 군사 정권의 어두운 그늘과 부도덕성이 낱알이 드러나다”

올해는 ‘11·22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된다. 그러나 201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11·22사건’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1·22사건’은 한국인의 기억에서 지워져 있다. 아니 애초부터 입력돼 있지 않았으니 지워졌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해인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는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 대학에 침투한 재일동포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재일동포 사회를 공포와 충격 속에 몰아넣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온전히 아물지 않은 채 봉합돼 있다.

불행히도 ‘11·22사건’은 단막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독재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져 정국이 불안해지거나, 대학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활발해질 조짐이 보이면 유학생 사건은 마치 주문생산이라도 하듯 어김없이 나타났다.

물론 재일동포 유학생이 간첩 사건에 휘말린 것은 ‘11·22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1971년 4월 대통령선거 직전 발표된 서승·서준식 형제 사건이다. 형제가 함께 구속된 데다 가혹한 고문 의혹이 제기돼 일본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다. 서승의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서준식의 목숨을 건 옥중 전향공작 고문 폭로와 장기간의 보안감호처분으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다.

또한 재일동포 사건은 유학생만이 전부가 아니다. 학자, 교수, 기술자,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됐다. 멀리는 1961년 민족일보 사건, 집권당 국회의원이 간첩으로 구속된 1969년 김규남 사건 그리고 2014년 봄 <상처꽃>이란 연극 상연으로 다시 조명을 받은 1974년 울릉도 사건도 다 연관이 있다.

재일동포 사건은 오랜 기간 국내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정보기관들이 요란하게 발표했던 사건들이 있는 반면, 1심부터 상고심까지 사형선고의 행진이 계속된 사건조차 재판과정이나 선고 내역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제법 있다. 그래서 20대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수갑을 찬 채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어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은 법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외면받았고, 옥중에서도 국내의 ‘민주인사’와 분리돼 고립됐다. 재일동포 사건의 피의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사람은 국내에 없었다.

2000년대 들어 재일동포 사건에도 뒤늦게나마 햇볕이 들기 시작했다. 2010년 말 재일동포 간첩조작의혹 사건의 재심을 전담하는 법률가 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변호사들로 ‘재일동포재심변호단’이 꾸려져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판결과 명예회복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결국은 기억을 둘러싼 싸움이다

이 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재심을 계기로 재일동포 사건의 실체를 재조명하기 위해 쓰였다. 재일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과 가혹한 운명이 어떤 시대적 맥락, 역사적 배경에서 전개됐는지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 각각의 삶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택했다.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처음 쓴 역사학자 박경식과 26년 만에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아쿠다가와상 수상 작가 이희성, 일본 사법연수소 국적 조항의 장벽을 뚫고 첫 재일동포 변호사가 된 김정득의 삶을 통해서 1970년대 재일동포 청년들이 놓였던 특수한 처지와 성장환경 그리고 그들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큰 그림으로 그렸다.

중앙정보부의 간첩 조작과 성고문을 폭로한 권말자와 고순자, ‘11·22사건’으로 구속돼 법정에서 경제학도로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존경한다는 말로 ‘반공이 국시’라는 허구성을 폭로한 김원중, 2010년 7월 무죄를 선고받아 유학생 사건 재심 무죄 1호가 된 이종수, 그는 가혹행위의 절정은 성기 고문이었다고 토로한다.



오랫동안 재일동포 취재 경력으로 ‘조선기자’라는 별칭을 얻은 무라오카 히로토. 그의 생생한 회고담에서 진보당 사건과 민족일보 사건 그리고 망명객 이영근의 흔적을 읽는다. 보국훈장을 받은 야쿠자 두목 양원석, 그가 어떻게 보안사령부의 정보꾼 노릇을 하면서 한일 우익 동맹의 연결고리가 되었는지를 파헤친다. 또한 모국 정권과의 관계 정립을 둘러싼 민단 내부의 오랜 갈등과 한민통 불법화 과정, 서 형제 사건을 통한 전향공작 제도와 폐지 운동 그리고 구속된 유학생 가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한다.

더불어 사형수의 삶을 살았던 강종현, 이철의 기구한 사연이 펼쳐진다. 중학교 2학년 때 지문날인의 정신적 충격을 겪은 뒤 민주화와 통일을 바라는 재일한국인 청년으로서 모국 유학을 결심했다는 강종현과 약혼자와 함께 구속되어 12년이 지나 결혼식을 올린 이철. 둘 다 사형 확정을 받고 10여 년이 넘게 수감돼 있다가 감형으로 일본으로 돌아간 경우다.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기억될 울릉도 사건을 일본에서 정치범 석방운동을 주도한 이좌영의 삶을 통해 돌아본다.

그밖에도 모국의 민주화 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동참하고 싶었던 동포청년의 의식과 정치범 구원활동을 통한 한일 시민사회의 만남 등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엄혹했던 시절을 드러낸다.

저자는 결국은 기억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얘기한다. 이 책에서 언급된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과 좌절과 흘러간 세월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되지 않는다.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진상을 밝히고 기억하는 작업을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희망을 찾으려 모국에 왔다가 가혹하게 버림받은 재일동포 정치범 희생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적이 없었다고….



어등산 의병대장 조경환과 전남지역 의병장

• 지은이 | 사단법인 의병정신선양중앙회

• 엮은이 | 이태룡 • 출판사 | 푸른솔나무 • 쪽 수 | 442쪽



『어등산 의병대장 조경환과 전남지역 의병장』은 국가보훈처, 광주광역시(광산구), 광복회(광주·전남연합지부)의 관심과 지원 아래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부설 의병연구소장 이태룡 박사가 집필하여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호남의병의 개요와 조경환 의병장의 행적을 살폈으며, 전남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들의 삶을 함께 조명해 달라는 조경환 의병장의 손자 조세현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40여 분의 의병장과 그 의진의 의병투쟁을 간략하게 엮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조경환(曹京煥) 의병장은 전남 광산 출신으로 1907년 12월 거의하여 이듬해 1월 초순 김준(金準) 의진의 좌익장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그러다 3개월여 뒤에 김준 의병장이 순국하자 의진을 수습하고 의병

장으로 추대되어 심남일(沈南一),李大克(李大克), 전해산(金海山) 의진 등과 연합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가 이끈 의진은 주로 어등산을 중심으로 용진산, 석문산, 덕룡산 자락에서 의병투쟁을 벌였는데, 그는 이 지역에서 의병투쟁이 가장 격렬하던 시기에 조국에 목숨을 바친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다.

일제시대는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의병들이 활약하였다. 오로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나 일본과 맞섰던 것이다. 그리고 순국하는 그 순



간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의병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게 독립의 의지를 각인시켰다. 그러한 순국 의병들의 활약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는 주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한목숨 아낌없이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재조명하고 그 의지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돌베개 – 장준하의 항일대장정

• 지은이 | 장준하 • 출판사 | 돌베개 • 쪽 수 | 460쪽



**광복 70주년,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 기념 전면 개정판
일본군을 탈출하여 임시정부 광복군에
투신한 6천 리 대장정의 기록**

1944년 7월 7일, 중국 쉬저우의 ‘쓰카다 부대’에 배속되어 있던 장준하가 일본군이 중일전쟁 7주년을 맞아 기념 회식을 하느라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김영록, 윤경빈, 홍석훈과 함께 목숨 걸고 탈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돌베개』는 영원한 광복군이자 시대의 ‘등불’이었던 고인이 “또다시 못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후세에 남긴 뜨겁고도 준엄한 항일수기이다. 오로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일념으로

7개월여에 걸쳐 쉬저우에서 충칭 임시정부까지 6천 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가는 대장정에 굵이굵이 서린 술한 일화와 1945년 11월 임시정부 환국 직후의 상황까지 2년여의 기간을 다룬 이 책의 무대는 평양에서 쉬저우 → 린완 → 난양 → 라오허커우 → 파촉령 → 충칭 → 시안 → 상하이 → 서울 등지로 광활하게 펼쳐진다. 함석헌 선생이 “내가 이 책을 읽었다기보다 이 책이 나를 빨아들여 하늘과 땅 사이에 회오리바람을 쳤습니다”라고 한 바 있는 이 책은 저자의 표현 그대로 자신보다 앞서 죽어간 “불쌍한 선열들 앞에 띄우는 바람의 묘비”이며, 그 내용은 망국과 분단이라는 “함정에 빠진 젊은 사자들의 울분과도 같이 처절”하다.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뜨겁게 웅변하는 이 책을 통해 장준하라는 역사의 거목을 추모하며 다시금 오늘을 돌아보자.



▶ ‘돌베개’와 함께한 6천 리 대장정 그리고 임시정부

– ‘돌베개’의 유래

‘돌베개’는 창세기 28장 10~15절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준하가 광복군이 되기 위해 일군을 탈출할 경우 아내에게 남기기로 한 암호였다. 장준하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로 시작하는 편지 말미에 “앞으로 베어야 할 야곱의 ‘돌베개’는 나를 더욱 유쾌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다짐을 써서 보낸 후 일군에서 탈출한다. 탈출병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카다 부대에서 탈출을 감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 광복군 3대 회고록 중 으뜸으로 꼽히는 『돌베개』, 첫 출간 이후 44년 만에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간!

문학평론가 조영일이 “지난 100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최고의 문학서”라고 상찬한 장준하 선생의 항일수기 『돌베개』는 이범석 장군의 『우등불』,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장정』과 더불어 광복군이 직접 쓴 회고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오랫동안 널리 읽혀왔다. 1971년 4월 30일에 장준하 선생이 『사상계』를 펴내던 사상사에서 처음 출간된 이래 여러 번 간행되었다. 1976년 일본에서 『석침 한민족에의 유서』石枕 韓民族への遺書라는 제목으로 사이마루출판회サイマル出版會에서 상하 두 권으로 출판되었고(안우식安宇植 번역), 1978년에는 화다출판사에서, 1985년에는 ‘장준하선생1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에서 ‘장준하문집’으로 1권 『민족주의자의 길』, 2권 『돌베개』, 3권 『사상계지수난사』가 간행되었다. 1987년에는 청한문화사에서 『돌베개: 청년시대의 항일투쟁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1992년부터는 세계사에서 간행되었으며 2006년에는 요약본 『쉽게 읽는 돌베개』가, 2007년에는 양장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1979년에 장준하 선생의 책에서 출판사명을 따와 오늘에 이르고 있는 ‘돌베개’ 출판사에서 드디어 선생의 서거 40주기에 즈음하여 『돌베개』를 출간하게 됨에 따라 출판사에서는 저자의 육필원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1973년에 세로쓰기 형태로 나온 제3판을 저본으로 삼

고 가장 최근에 나온 세계사 간행 개정판 9쇄(2014년 3월)를 참조하여 원문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수많은 오류와 누락 부분을 바로잡은 전면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중략)

또한 장준하기념사업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6천 리 장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세 지도와 이전 판본들에는 들어 있지 않던 다양한 컬러도판들, 주요 등장인물 소개 등을 보강한 새 개정판 『돌베개』는 향후 명실상부한 정본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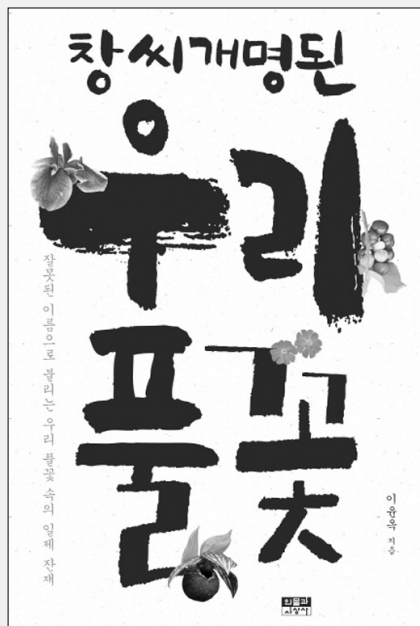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풀꽃

속의 일제 잔재

• 지은이 | 이윤옥 •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 쪽 수 | 252쪽



광복 70주년, 하지만 아직도
우리 풀꽃은 일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광복 70주년, 식물주권을 되찾아야 할 때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해왔다. 당연히 오랫동안 불려온 우리 고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일환으로 우리 산야의 식물들이 채집하고 이름 붙이면서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식물의 호적이라 할 수 있는 학명에는 일본 학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 큰개불알꽃, 며느리밑씻개, 도둑놈의갈고리, 쯔개갓냉이 같은 저속한 이름은 일본 이름을 번역한 것이다. 심지어 번역조차 엉터리인 것이

많다. 광복 7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풀꽃 이름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이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예전부터 써오던 이름은 바꾸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광복 100주년이 되어도 우리 풀꽃은 일본 말에 오염된 지저분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풀꽃에 우리 이름을 붙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풀꽃은 어떻게 창씨개명 되었나?

우리 풀꽃 중에는 큰개불알꽃, 며느리밑씻개, 도둑놈의 갈고리, 쯔개갓냉이처럼 쉽게 그 풀꽃의 이름이 연상되지도 않을뿐더러 저속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름이 많다. 이 이름들은 일본 말을 무책임하게 번역한 결과이다.

큰개불알꽃은 오이누노후구리(大犬の陰囊)라는 일본 이름을 번역한 것이다. 이 이름을 붙인 것은 일본의 식물학자 마키노 도미타로다. 마키노는 큰개불알꽃의 열매가 개의 음낭(이누노후구리, 犬陰囊)을 닮았다고 이런 이름을 붙였다. 중요한 것은 큰개불알꽃 열매에서 개의 음낭을 본 것 자체가 일본인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이 이 꽃에 이름을 붙였다면 전혀 다른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른다.

며느리밑씻개는 마마코노시리누구이(繼子の尻拭い)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마마코노시리누구이는 ‘의붓자식의 밑씻개’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의붓자식’이 ‘며느리’로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의붓자식이 밉지만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미운 것일까? 어쨌든 가시가 촘촘히 난 풀로 밑을 닦는다는 발상 자체가 불쾌하다. 일본 말에서 유래해 식물도감에 버젓이 올라 있는 며느리밑씻개는 이 땅의 며느리들을 욕보이는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번역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엉터리 이름도 수도룩하다.

개망초의 일본 이름은 히메조온(姫女?)이다. 일본어 ‘히메(姫)’는 어리고 가냘프며 귀여운 것을 뜻하므로 애기망초나 각시망초로 옮기는 것이 적당했을 것이다. 실제로 ‘히메’가 붙은 이름은 대부분 ‘각시’나 ‘애기’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개망초 등 일부 식물은 ‘히메’를 ‘개’로 번역해놓았다.

등대풀이라는 식물이 있다. ‘등대’ 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높게 선 등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 식물을 바닥에 낮게 붙어서 피기 때문에, 등대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등대풀의 유래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아니라 일본의 『어원유래사전』에 나와 있다. “등대풀의 등대는 옛날 집안의 조명 기구인 등명대를 말한다”는 것이다. 등대풀이라는 한글 이름이 처음 보이는 문헌은 『조선식물항명집』으로 ‘등대풀(Dungdaepul)’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일본 말의 등대가 등잔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고 번역한 것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이름마저 없앤, 자존심을 버린 이름들이다.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식물을 채집, 조사하면서 그 가운데 상당수에 ‘조선’이나 ‘고려’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현재 조선이나 고려가 붙은 들꽃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식



물 이름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선이나 고려 등을 빼고 옮겼기 때문이다. 봄을 대표하는 꽃인 개나리의 일본 이름은 조센렌교(チヨウセンレンギョ)다. 일본 말로 조선(朝鮮)을 뜻하는 조센(チヨウセン)이 붙어 있으나, 번역자들은 ‘조선’ 대신 ‘개’를 붙여 개나리라고 이름 지었다. 개나리 외에도 개암나무, 개벚나무, 개비자나무 등이 ‘조선’이 ‘개’로 번역된 경우다. 저자는 최초로 식물의 한글 이름이 기록된 『조선식물향명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조사해 2,079종의 식물 중 99종에 달하는 식물 이름에서 ‘조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식민 지배의 흔적이 남아 있는 풀꽃 이름

금강초롱은 금강산 등 산지에서 자라는 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반도 특산종이다. 하지만 금강초롱은 예전엔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의 이름을 붙인 화방초(花房草)라고 불렸다. 하나부사는 초대 일본 공사로, 일제의 조선 강점 발판을 마련했던 인물 중 하나다. 하나부사에 대한 기록은 『고종실록』에도 남아 있다. 하나부사는 한반도 자연을 착취하기 위해 각종 자원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카이 다케노신을 비롯한 일본 식물학자들을 지원했다. 금강초롱은 이제는 더 이상 화방초라 불리지 않지만 학명(Hanabusaya asiatica Nakai)에는 여전히 하나부사의 이름이 남아 있다.

지금은 조선화관, 또는 평양지모라 불리는 사내초(寺內草)는 악명 높은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에게 바쳐진 이름이다. 데라우치에 관한 기록은 『한민족독립운동사』에서도 볼 수 있다. 데라우치는 헌병 주체 경찰을 편성해 한일병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완용에게 병탄 안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런 “데라우치 각하의 공을 길이 보존코자” 붙인 이름이 바로 사내초다. 사내초는 현재 조선화관이나 평양지모로 불리고 있지만, 학명은 여전히 데라우치 총독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식물의 호적이라 할 수 있는 학명에 남은 일제 잔재도 심각하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만든 『한반도 고유종 총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반도 고유 식물은 모두 33목 78과 527종이다. 이 가운데 일본 학자 이름으로 학명이 등록된 식물은 모두 327종으로 무려 62퍼센트에 달한다. 이제 와서 학명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우리 풀꽃의 호적이 일본인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아두어야 한다.

아름다운 우리 이름을 돌려주자

일제의 식민 침략은 단순한 영토 침략을 넘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우리 고유의 이름마저도 창씨개명으로 없애버렸다. 그런 와중에 우리 땅에 나고 자라던 수많은 풀·꽃·나무도 제 이름을 잃고 일본 이름으로 굳어졌다. 잘못된 번역도 많지만 번역을 바로 잡는 것보다 좋은 것은 일본인이 붙인 이름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다.

풀꽃 이름뿐 아니라 풀꽃을 설명하는 국어사전이나 식물도감의 설명도 바뀌어야 한다.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해온 식물들에 관한 풀이가 어근도 이해하기 힘든 말로 경직되어 있는 것은 청산되지 못한 일본 말 찌꺼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이름에 붙은 일본 말 찌꺼기는 지금껏 대대적인 수술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다. 내로라하는 식물학자 가운데는 예전에 부르던 이름을 조금도 바꾸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니 개탄스럽다.

저자는 국립국어원, 산림청, 국립생물자원관 같은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처해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풀꽃 이름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것을 촉구한다. 식물 이름을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제의 흔적이 강하게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유래라도 밝혀주는 것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바른 자세일 것이다.



20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



‘20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8월 14일~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펼쳐졌다. 이 행사는 광복 7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독립과 민주,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자라나는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독립민주인들이 자신의 발 도장을 찍어 험난한 인생 여정의 발자취를 남기는 ‘풋프린팅’이 광복절 전야인 14일 오후 7시30분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 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는 독립운동가로 항일결사조직인 개진대(改進黨)와 조선독립청년당을 결성해 일제에 항거한 조성인 지사(93),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와 광복군 제2지대에서 일본군 와해 공작활동을 펼친 이운장 지사(92)가 참여했다.

민주인사로는 50여 년간 민주화, 노동, 통일 운동에 헌신해 온 이창복 선생(77), 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창립하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펼쳐 온 함세웅 신부(73),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언론자유와 민주화 운동을 펼친 이부영 전 의원(73)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옥사 체험 ‘광복의 아침’과 역사극 ‘아리랑 랩소디’ 등의 다채로운 역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국치일 105주년 남북공동 추념대회



우리 민족이 일제의 불법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던 국치일인 8월 29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국치일 105주년 남북공동 추념대회’가 열렸다.

주최 단체인 독립유공자유족회는 작년을 시작으로 3번째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국치일 행사를 진행하였다. 민족각성의 날인 국치일을 맞이하여 시련의 역사를 반복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며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평화통일의 가치를 올리하고자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국치일 남북공동 추념대회는 작년 6월 1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심양에서 남과 북의 실무자회담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다.

‘여성 광복군 : 대한민국 여군의 선구자’ 세미나



9월 6일 제65주년 여군의 날을 기념하고자 8월 24일 ‘여성 광복군 : 대한민국 여군의 선구자’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삼열 국방사 부장(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을 비롯해 한시준 교수(단국대 역사학과), 심옥주 소장(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오희옥 애국지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오광심 대원은 남편 김학규와 함께 광복군 제3지대 간부로 활동했고, 지복영 대원은 광복군 총사령관인 지청천 장군의 딸로서 광복군 제3지대 요원으로 활동했다. 조순옥 대원은 광복군 제2지대에서 활동하면서 서안 최전선 작전에 투입됐으며 김정숙 대원은 주로 대적심리공작활동을 수행했다. 이 외에도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 박차정, 백범이 인정한 군번 1호 여자광복군 신정숙, 공군으로 참전한 여류비행사 1호 권기옥, 16살, 14살의 광복군 자매 오희영과 오희옥 등도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광복군에 소속되어 여성광복군으로서 항일 독립전선에 뛰어든 참전용사이지만 대한민국 여군사에 조차 기록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암 차리석 선생 서거 70주기 추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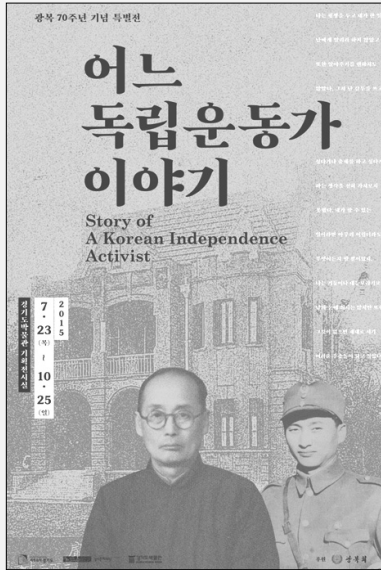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비서장을 지낸 동암 차리석(1881~1945) 선생 70주기 추모식이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 임시정부요인 묘소에서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회장 차영조)와 ‘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과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비롯해 독립운동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효창원을 사랑하는사람들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후원했다.

동암의 장남인 차영조(71)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생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등 일곱 어른의 독립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기념사업회 조직을 재정비해 선친들의 독립운동정신을 제대로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 <어느 독립운동가 이야기>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광복, 독립운동가의 삶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전시회를 준비했다. 기증 자료가 바탕이 된 이번 전시회는 파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기증자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가족 모두가 조국을 떠나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남파 박찬익(1884~1949), 임시정부 재무부차장이었던 신건식(1889~1955)과 부인 오건혜(1894~1955), 이들의 자녀이자 광복군 부부인 박영준(1915~2000)·신순호(1922~2009)가 그 주인공이다. 2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는 이들의 후손이 경기도박물관에 독립운동 자료 2,000여 점을 기증하면서 전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사진, 신규식·박찬익 등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의 도장, 한국독립당 기관지인 '한보', 박찬익의 친필 유고, 일제강점기의 단군 영정, 대한민국임시정부 배지, 광복군 서명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광복군 부부의 결혼증서, 결혼식날 신부가 입었던 치파오, 신규식의 저서인 《아목루》의 필사본 원본과 《한국혼》의 원고가 된 《수견수록》, 임시정부 임명장, 한국광복군 관련 사진 등 10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들 자료의 대부분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다.

- 전시기간 : 2015.07.23~2015.10.25
- 전시장소 :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정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9월 4일 오전 국회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자동(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과 윤경자(임시의정원 의장 윤기섭 후손), 장호권(한국광복군 장준하 후손), 차영조(동암 차리석 후손), 김정록(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후손) 등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독립운동정신의 훼손이 우려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짓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교과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국정 교과서 발행을 강행할 경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연일 국정화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9월 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국정화 여부를 밝힐 예정에 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월 14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중인 김정록님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후손)



9월 17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중인 박덕진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연구실장)



10월 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중인 차영조님 (동암 차리석 후손)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독립을 위한 여성 영웅들의 행진’ 특별기획전



국립여성사전시관은 8월 12~25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에서 '독립을 위한 여성 영웅들의 행진'을 주제로 여성독립운동가 특별 기획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정부 차원에서 여성 독립 유공자의 업적과 활동을 조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19년 부녀자들이 직접 쓴 '대한독립여자선언서'가 전시되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가 아버지의 유품 속에 발견해 기증한 이 선언서는 3·1 독립선언서보다 빨리 작성됐다. 김인중·김숙경·김옥경·고순경·김숙원·최영자·박봉희·이정숙 등 8명 이름이 적힌 이 선언서는 일본을 엄중히

꾸짖고 여성들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수훈된 여성독립운동가 248명 중 생존자 4명을 행사기간에 초대해 이들의 손도장을 태극기에 남기는 '여성독립운동가 태극기 제작' 행사도 진행되었다.

제15차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회



본회 제15차 이사회가 지난 9월 17일(목)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11차년 사업 보고, 감사보고, 결산서 승인 및 제12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정관 개정, 임원변동의 건이 의결안건으로 올라가 승인되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5년 7월, 8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7월	8월	회원명	7월	8월	회원명	7월	8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창윤	10,000	10,000
강만길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호	10,000	10,000
권경업	50,000	50,000	반병률	10,000		이향중	30,000	30,000
권영관	10,000	10,000	배석준	5,000	5,000	이해준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배해원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광재	5,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동현	1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룡근	10,000	10,000	서동희	5,000	5,000	임재경	10,000	10,000
김명철	10,000	10,000	서봉수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김봉현	30,000	30,000	서흥관	30,000	3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빛나		10,000	석혜진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삼웅	20,000	20,000	신경숙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신홍범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성배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숙정	50,000	50,000	안재웅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지원	5,000	
김영일	10,000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정철승	30,000	
김용수	5,000	5,000	엄승훈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윤수	30,000	30,000	오은주	20,000	2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윤영	10,000	1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영빈	5,000	
김재홍	10,000	1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원영애	3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정인	20,000	20,000	유덕곤	10,000	1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유상수	10,000	10,000	조희환	20,000	20,000
김종배	20,000	20,000	유은숙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종성	10,000	10,000	유종하	1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중숙	10,000	10,000	윤경자	20,000	2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종순	5,000	5,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권행	30,000	30,000
김진현	50,000	5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건웅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최희주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한의석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홍순권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상훈	10,000	10,000	홍용희	10,000	1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상배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영국	10,000	10,000	황인자	30,000	30,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영숙	10,000	10,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영후	30,000	3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재선	5,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종찬	100,000	10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창복	20,000	20,000			

2015년 7월, 8월 특별회비

회원명	7월	8월
(주)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김재영		1,0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⑭

김마리아와 서대문형무소



황해도 장연 송천리에서 태어난 김마리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독립운동가이다. 아버지는 한학자로 서상륜(徐相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1895년 아버지가 세운 소래국민학교에 입학하여 4년 만에 졸업하고, 집에서 여공(女工)을 수 업하면서 한문공부에 열중하였다. 1895년과 1904년 부모님이 잇달아 돌아가셨지만, 대학공부까지 시키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1905년 서울로 올라와 삼촌 필순(弼淳)의 집에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당시 필순은 노백린(盧伯麟)·김규식(金奎植)·유동열(柳東悅)·이동휘(李東輝)·이갑(李甲) 등 애국지사들과 잦은 교류를 하였다. 1906년 이화학당(梨花學堂)에 입학하였지만 교파관계(敎派關係)로 곧 연동여학교(延東女學校: 현재 정신여자중학교)로 전학하여 1910년에 졸업하였다. 그

뒤 광주 수피아여학교에서 3년간 교사를 지냈고, 1913년 모교인 정신여학교로 전근하였다. 그 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긴조여학교(錦城女學校)와 히로시마여학교에서 1년간 일어와 영어를 수학한 뒤, 1915년에 동경여자학원 대학 예비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였다. 1918년 말 경 동경유학생 독립단에 가담, 황에스터(黃愛施德) 등과 귀국동지가 되어 1919년 2·8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나 일본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조국광복을 위해 스스로 졸업을 포기하고, <독립선언서> 10여장을 베껴 일본 옷 띠인 오비 속에 숨기고 차경신(車敬信) 등과 2월 15일에 부산에 입항했다. 이후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준비를 위해 황해도 지역에 동지 규합하여 봉산에서 활약하였다. 이후 서울의 모교를 찾아갔다가 일경에 체포되면서 모진 고문으로 상악골충농증에 걸리고 보안법 위반 죄목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5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동년 8월 5일에 석방되었다.

출옥 후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애국부인회의 출옥 환영회에서 그녀는 동회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이후 상해에서 조직된 대한적십자회 대한지부를 결성하고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로 보내고, 독립선언문을 배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19년 11월 이러한 사실이 일경에 탐지되어 체포되었으며 예심 중 일경의 모진 고문으로 중병에 걸려 대구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고등법원에 상고하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1921년 3월 경성복심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병으로 휴양하도록 승인 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상해로 탈출하여 망명하였다.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황해도 대의사(代議士), 재상해애국부인회 간부, 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하면서 남경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수학하였다.

1923년 6월에는 국민대표회의에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참가하여 성명서 발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1927년 시카고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이듬해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30년 뉴욕 비블리컬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한편, 이곳에서 황에스터·박인덕(朴仁德) 등 8명의 옛 동지들을 만나 동지들과 근화회(槿花會: 재미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재미한국인의 애국정신 진작과 일제의 악랄한 식민정책을 서방국가에 널리 알렸다.

1935년에 귀국하여 원산의 신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기독교 전도 사업에 헌신하였다. 하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1944년 순국하였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 시체는 화장하여 대동강에 뿌려졌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제 11기「독립정신」답사단 모집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서

2015. 12. 19 ~ 12. 23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96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는 임시정부가
활동 했던 중국관내지역 답사를 함께할 제 11기 독립정신 답사단을 모집합니다.
역사와 민족의식에 관심이 많은 남녀 대학(원)생 50명을 선발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2일(월) ~ 11월 4일(수)

선발발표 : 2015년 11월 9일(월)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kopogo.com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